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2008. 12

백지

제출문

2008년 10월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를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완성하였기에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회장 박영규

■ 연구진

연구책임	이우권 (인덕대 교수, 건축학박사)
연구위원	김광만 (인덕대 교수, 공학박사)
	박석수 (세투 어소시에이츠 이사, 건축학박사)
	변소영 (스튜디오투 건축사사무소 소장, 건축사)

목 차

■ 요약

I. 서론	39
1. 과업 개요 _	41
2. 과업 범위 _	42
3. 과업 수행 방법 _	43
II.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개념과 건립방향	45
1. 건립 배경 및 목적 _	47
가. 건립 필요성 및 배경 ..	47
나. 목적 및 역할 ..	48
2.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 _	51
가. 현대사 자료 수집 및 보존 아카이브 ..	51
나. 전시 ..	54
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56
3. 건립 기대효과 _	61
III. 여건분석	63
1. 입지 및 관련여건 _	65
가. 입지 환경 ..	65
나. 인문사회 환경 ..	67
다. 학문적 환경 ..	73

라. 제도적 환경 .. 75

2. 국내외 유사사례 _ 94

가. 해외 박물관 및 복합문화시설 분석 .. 94

나. 국내 박물관 및 복합문화시설 분석 .. 101

다. 시사점 .. 104

IV. 컨립기본구상 105

1. 건축기본구상 _ 107

가. 배치 및 토지이용 .. 107

나.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검토 .. 112

다. 건축의 기본체계 .. 114

라. 기능분석 .. 120

마. 시설규모 구상 .. 127

2. 자료수집 기본구상 _ 138

가.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 138

나. 자료수집 규모 계획 .. 139

다. 자료수집 방안 .. 142

3. 전시기본구상 _ 144

가. 전시기본개념 및 체계 .. 144

나. 전시기본방향 .. 146

다. 전시프로그램 및 내용 .. 148

라. 전시연출 기본방향 .. 160

4. 교육문화프로그램 _ 163

가. 공연·예술 .. 163

나. 도서·정보 .. 164

다. 문화행사 .. 165

V. 운영 및 관리계획 167

1. 수요추정 _ 169

가. 국내박물관 시장동향 .. 169

나. 현대사 관련 복합문화예술시설 분석 .. 176

2. 조직 _ 180

가. 조직기본개념 .. 180

나. 조직 및 직무구성 .. 181

3. 운영관리계획 _ 188

가. 연간 운영예산 .. 188

나. 수익사업계획 .. 189

다. 시설관리 계획 .. 190

VI. 건립추진계획 193

1. 사업추진 일정 _ 195

가. 건립추진계획 .. 195

나. 총사업비(안) .. 198

2. 건립추진기구 구성 _ 199

VII. 종합 및 제언 201

1. 연구종합 _ 203

2. 정책건의 및 제언 _ 204

부록 205

백지

■ 요약

백지

I. 서론

1. 과업 개요

■ 과업명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 과업 배경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대통령 8.15경축사(’ 08. 8. 15)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근현대기 한국사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지향적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관점을 제안하며,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로의 확산 가능성과 그 전망을 제시하는 효과가 기대됨

■ 연구 기본개념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시민과 대한민국의 역동적 현대사에 대한 교육적 교감을 나누는 체계로 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다양한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복합문화센터처럼 개념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관련 학문의 정보와 전시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국가상징거리의 핵심 복합문화예술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함

2. 과업 범위

■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부 청사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일원

- 면적 : 15,339㎡(4,640평)

○ 시간적 범위

- 개관 목표 : 2015년(예정)
- 사업 기간 : 2009년 ~ 2014년 (6년간)

■ 내용 범위

본 연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준비 및 기본구상 검토 단계로 과정으로 개념과 건립방향 설정, 사전조사 분석, 건립 기본구상,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본 연구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3. 과업 수행 방법

본 연구는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진행하였음

연구의 진행은 여건 분석, 건축기본구상, 자료수집 기본구상, 전시기본구상, 수요추정, 조직 및 운영계획, 건립추진계획 및 예산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됨

II.국립현대사박물관의 개념과 건립방향

1. 건립 배경 및 목적

■ 건립 필요성 및 배경

-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활동 중추기관
- 전시를 통해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확산 가능성과 전망제시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내용적·시설적 완성도 제고

■ 목적 및 역할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 대한민국 현대사를 전시·소개하는 종합박물관
-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정보센터
- 국가상징거리의 거점 문화 편의시설

■ 대국민 공모를 통한 명칭 선정

다양한 명칭대안 중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관, 대한민국역사미래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사박물관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나,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본기능에 도심형 복합문화 예술센터로서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식의 복합박물관임

현재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초기 수집단계에 있고 그 수집 작업은 막대한 시간을 필요로 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집이 시작되어야 하므로 수집전문가의 확보와 임시수장고의 설치가 시급함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중 수집·보존, 전시, 교육문화 기능은 도심 문화공간으로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핵심기능임

■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핵심 기능

- 현대사 자료 수집·보존
- 전시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3. 건립 기대효과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 및 연구의 집대성
- 근현대기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
-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 제시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등의 체계적 진행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III. 여건분석

1. 입지 및 관련여건

가. 입지 환경

■ 입지의 상징성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상징성과 더불어 역사적 상징성(광화문광장과와의 관계 등)을 갖는 입지의 상징성이 있음

■ 기존 청사 활용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를 건립대지로 하고, 기존 청사 본관을 활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이 자유롭지 못하고, 지하층이 기존 본관을 중앙에 놓고 두 개로 나뉘어야 하는 등 토지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나. 인문사회환경

■ 문화교육 기회 증대 필요성 높음

2006년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문화교육경험율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관객개발을 위한 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인프라 구축 시급

2007년도 한국방문 전체 외래관광객 수는 약 644만명중 서울시 방문객은 한국 전체 방문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관광안내소가 대부분 소규모이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관광안내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학문적 환경

■ 현황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련한 학계의 최대 이슈는 현대사교과서의 재개정에 관한 부분으로 집약되고 있음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시’에 대해 일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10여개의 역사학술단체들이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현대사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점과 동향은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대표되는 좌편향과 우편향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임

■ 종합

현대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 사업이며, 새로운 사료와 증언 등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현대사박물관의 핵심 역할임

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담아야 함

이념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건립위원회 등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

다루는 시간의 범위 설정이 중요하며, 21세기적 새로운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 필요

현대사박물관은 이념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의 의미를 담은 박물관이 되어야 함

전시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담되, 가급적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증코너를 활용해 국민 개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라. 제도적 환경

■ 관련 상위계획 검토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 중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 ~ 2008)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개선방안에서 공공박물관 500개관(인구 9만명당 1관) 건립을 2011년까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광화문광장조성계획

광화문광장조성계획은 현재 턴키방식에 의해 사업에 착수하여 있으며, 폭 100m, 연장 740m에 이르는 공간에 광장조성, 보차도 정비,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이 이루어짐. 2009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함

■ 국가상징거리조성계획

국가상징거리는 세종로~서울광장~서울역에 이르는 거리를 범위로 함.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관련 자료에는 통과도로와 광화문시민열린마당 그리고 문화부 청사를 현대사박물관 부지로 명시하고 있음

■ 검토 종합

-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1983년)에 의해 건폐율 45% , 용적률 670%, 고도제한(기존건축물의 높이이하, 도로사선제한 0.5배이하)을 받음
- 문화재청 심의에 따라 건축 배치 규모 및 형태 등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시발굴 상황에 따라 건립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이나 아직 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고도제한 완화 및 북측 지하차도 및 통과도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함

2. 국내외 유사사례

■ 시사점

국내에 현대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관련 박물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이 소장한 관련 자료에 대한 학술적, 사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보교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연구 체계화와 정보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박물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합공연장의 경우에도 전시시설을 갖추어 종합적인 문화시설로 변모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음

파리의 Pompidou Centre와 브뤼셀의 BOZAR와 같은 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에 위치해 시민의 일상속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음은 도심의 복합문화시설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박물관의 전시기법도 교육적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 연구에 의해 수준 높은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전시와 이벤트(공연), 정보(도서)제공에 더해 도심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사례연구를 통해 얻어진 국립현대사박물관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국내 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의 시급성
- 박물관이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시 활성화에 기여
- 교육적이고 과학적 전시기법의 전시공간 구성
- 도심문화관광의 핵심시설로서 편의기능 강화

IV. 건립기본구상

1. 건축기본구상

가. 배치 및 토지이용

1) 배치계획

광화문광장 및 인접한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옥외동선체계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개발로 접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확장성

현재 대지 내에는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향후 증축 및 확장을 위해서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또는 미국대사관의 이전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서 배려할 필요가 제기됨

■ 도로와의 보존적, 시각적 관계

박물관은 세종로와 인접하게 되므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야 함

박물관이 보이는 개성 있고 뛰어난 건축적 조형은 대중으로부터의 시각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건축적 아이덴티티와 주변으로부터 비스타를 이룰 조형이 필요함

■ 옥외전시 계획

국립현대사박물관 외부의 공간별 분위기에 맞는 조형물을 선정, 요소요소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함

옥외전시공간은 전시물과 공간분위기를 활용하여 국립현대사박물관과 인접 시설과의 조화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함

단 지상주차공간으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종로측에는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과의 조화 속에 전시내용 및 시설물의 배치가 결정되어야 함

2)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 세종로측 보행로와 지상주차공간의 적절한 조화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의 활용방안 검토 필요
- 미국대사관 이전 후 부족한 전시공간 등 확장 검토

(2) 동선계획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상 본 대지로의 차량 접근은 이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공간에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다루는 대형 트럭과 비상 또는 응급차량 등 서비스 차량의 이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본 건립예정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계획시 건축이 표출하는 상징성과 인지성을 중요 계획요인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박물관의 위치와 접근경로를 잘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사인(sign) 시스템이 필요함

나.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검토

완공 후 48년 지난 노후한 건물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본관의 낮은 천장고 등으로 각 실들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투자비 대비 경제성 검토 필요

다. 건축의 기본체계

국립현대사박물관은 현대사 자료의 수집·수장, 전시, 공연,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갖게 되므로 건축의 동선체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동선은 크게 이용자와 물품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이용자는 관람자(개인, 단체)와 직원으로, 물품은 일반물품과 유물로 나누어지므로 이용자와 물품의 관계를 잘 구분하여 각 동선의 순로, 적절한 접속, 격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함

박물관 건축의 공간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간체계와 기능 간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해 세부기능을 조직화하고 관리와 보안, 설비체계, 건축의 마감수준도 효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확장성을 결정짓는 개념은 일차적으로 건축의 외향 구조, 이차적으로는 각 부 치수의 계열화에 근거함. 현재의 단계는 현 문화체육관광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와 조건이며, 2차적으로는 주변(특히 미국대사관 이전후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의 확장을 통해 세계적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용하는 것을 확장의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

라. 기능분석

따라서 본 현대사박물관의 기능은 박물관으로서의 내적기능인 수집·보존, 전시, 연구, 사무, 시설관리 기능에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수용하는 부가기능인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연, 관광정보 제공 등이 추가되어 구성되어야 함

마. 시설규모 구상

■ 유사사례를 통한 규모 검토

박물관 규모 유형을 토대로 검토한 각 규모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20,000㎡~40,00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00㎡ 내외	30,000㎡ 내외	40,000㎡ 이상
규모 특성	지역거점 또는 특화 주제 국립박물관	서울 및 수도권 타깃 특화주제 국립박물관	국가를 대표하는 복합기능 수행

■ 시설구성 및 규모 대안 검토

본 규모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와[1안], 기존 청사부지내에서 확보 가능한 규모로 조정하여 검토하고[2안], 기존 건물만을 활용하는 방안[3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됨

구분	최대증축범위 (법적한도)	1안	2안	3안
대지면적	6,446㎡	6,446㎡	6,446㎡	6,446㎡
건축면적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건폐율 45% 적용)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2,845㎡ 청사(본관) : 1,234㎡ 청사(별관) : 1,611㎡
연면적	43,188㎡ (지하제외) (용적률 670% 적용)	33,000㎡ 청사 : 8,000㎡ 증축 : 25,000㎡ (지하주차 5,400㎡ 포함)	28,000㎡ 청사 : 8,000㎡ 증축 : 20,000㎡ (지하주차 4,500㎡ 포함)	10,000㎡ 청사(본관) : 8,000㎡ 청사(별관) : 2,000㎡ 주차 : 기존유지
높이	27.43m (기존 건물 높이 이하)	27.43m (지하 3층, 지상 5~8층)	27.43m (지하 3층, 지상 5~8층)	27.43m (지상 8층)
주차대수	적용기준 : 연면적 167~200㎡ 당 1대 적용	165 ~ 198대	140 ~ 168대	50 ~ 60대 (현재 규모 가능)

- * 1안 : 시민열린마당 및 통과도로 부지의 활용이 필요함
- * 2안 : 기존 본관을 활용하며, 지상 및 지하공간을 증축함
- * 3안 : 기존 청사 건물을 활용함으로 별도의 증축은 없음

■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

위에서 분석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청사부지 내에서 본관을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2안의 경우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시 및 수장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의 면적이 부족하므로 향후 확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구분	1안	2안	3안
	33,000㎡(약 10,000평)	28,000㎡(약 8,500평)	10,000㎡(약 3,000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시설 기능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2,000평 - 공연 300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시설 기능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1,800평 - 공연 300석 등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단축 가능 ○ 기계실 이설 불필요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불필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필요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 ○ 시민열린마당 등 부지 협의 반드시 필요 ○ 기계실 이설 필요 ○ 부지 내 통과 도로 폐지문제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지구단위계획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열린마당과의 연계로 부족한 옥외공간 문제 해결 필요 ○ 기계실 이설 필요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지구단위계획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시설 기능 부족 ○ 전시규모 협소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규모 계획

위의 규모 대안에 대한 세부 영역별 면적구상(안)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계획 단계를 통해 각 영역 및 실별 요구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시설구성	주요 기능	연면적(㎡)			비고
			1안	2안	3안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상설 전시	5,100	4,500	1,000	
	기획전시실	특별전 기획 및 전시	1,500	1,500	1,000	
수장영역	수장고	지류, 필름 및 영상자료, 대형수장품, 생활용품 등	4,200	3,000	1,500	

	수장관련 시설	하해장, 정리실, 사진실, 소독 및 훈증실 등	600	600	500	
교육영역	도서자료실	일반도서실, 전문도서실, 자료실	500	500	300	
	정보검색실	정보자료 수집 및 검색, 관광정보 등	800	800	500	
	강의실 등	강의실, 세미나실 등	300	300	200	
공연영역	다목적 공연장	300석 규모의 복합이벤트홀	1,000	1,000	-	
	부속실	로비, 준비실 등	600	600	-	
사무 및 연구영역	사무실	관장실, 사무실, 전산실, 문서고, 물품창고 등	500	300	200	
	연구실	학예실, 보존과학실 등	600	600	400	
	회의실 등	회의실, 문서고, 물품창고 등 기타	500	500	400	
부대시설	북카페	문화 관련 상품 및 신간 서적 판매와 디지털 정보제공 중심의 카페 도서관	300	300	100	
	Art Shop	문화예술창작품·각종 기념품·도서·음반·DVD 등을 판매하는 문화예술 전문 쇼핑공간	200	200	100	
	지하주차장	법정 대수 확보	5,400	4,500	-	
관리 및 공용면적	시설 유지관리	기계실, 전기·발전기실, 공조실, 방재실, 방호실, 관리 및 창고 등	3,900	3,300	1,400	
	공용면적	로비, 계단실, 복도, E/V, 화장실 등 (전체면적의 20~30%, 기존 청사 포함)	7,000	5,500	2,400	
계			33,000 (10,000평)	28,000 (8,500평)	10,000 (3,000평)	

■ 기존 건물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 및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건축 공간적 활용성이 제고 되어야 함

■ 규모 검토 종합 및 제안 / 2안 28,000㎡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안함

- 규모 : 2만 (28,000㎡, 약 8,500평, 지하주차장 포함)
- 기존건물 활용여부 :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결정

■ 전시면적 검토

정확한 전시면적 산정을 위해서는 전시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전시품수와 전시모드를 결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나, 이는 후속 연구인 기본계획 연구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박물관의 전시면적 비교를 통해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면적을 추정하였음

박물관 연면적이 28,000㎡ 일 때, 사례의 평균 비율인 30%를 적용하면 약 8,400㎡가 필요하게 되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다목적 공연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면적을 6,000㎡로 축소함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전시 및 수장부문 면적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 박물관	국립현대사 박물관	평균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연면적	28,000㎡	—	137,255㎡	16,142㎡	20,166㎡	37,500㎡
전시면적	6,000㎡	—	27,145㎡	4,903㎡	6,285㎡	14,144㎡
연면적 대비	21.4%	29.78%	19.8%	30.4%	31.2%	37.7%

2. 자료수집 기본구상

가.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관련자료 수집은 장기계획과 전략을 필요로 함

체계적인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구입, 기증, 감정, 조사활동, 대여, 위탁 등 다양한 수집과정을 담당할 위원회의 발족과 자료의 수집절차, 등록과 서류화 전담부서의 인력조직도 필요함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은 자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으며, 자료 수집은 단기 및 장기계획으로 구분해 진행하여야 함

나. 자료수집 규모계획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자료수집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상설전시실에 직접 전시될 수량 : 1,240점 ~ 1,875점
- 상설전시를 위한 여유 수량 감안 : 2,480점 ~ 3,720점
- 개관을 위한 수집 목표량 : 20,000점

■ 국내 박물관 사례 비교

구분 \ 박물관	현대사 박물관	평균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부지면적	6,446㎡	—	295,551㎡	39,626㎡	99,584㎡	66,916㎡
	1,950평	—	89,404평	11,987평	30,206평	20,242평
건축연면적	28,000㎡	—	137,255㎡	16,142㎡	20,166㎡	37,500㎡
	8,500평	—	41,520평	4,883평	6,100평	11,344평
전시면적	6,000㎡ 상설 4,500㎡	—	27,145㎡	4,903㎡	6,285㎡	14,144㎡
	1,800평	—	8,211평	1,483평	1,901평	4,279평
연면적 대비	21.4%	29.78%	19.8%	30.4%	31.2%	37.7%
전시품 수량	1,875점	—	16,949점	2,249점	1,085점	350점
전시면적대비	3.2㎡/점	3.2㎡/점 (현대미술관 제외)	1.61㎡/점	2.18㎡/점	5.8㎡/점	40.42㎡/점

다. 자료수집 방안

자료수집은 자료구입, 기증 및 기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수집위원회 또는 유물구입위원회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

■ 자료 기증을 위한 전국적 홍보 필요

자료기증 운동을 통해 자료의 입수뿐만 아니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되므로 전시품목 및 수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전국민적 홍보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3. 전시기본구상

가. 전시기본개념 및 체계

1) 전시기본개념 및 목적

■ 목적

국립현대사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대한민국의 역동적 현대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본개념

- 유물과 사람이 있는 전시
- 조형미와 예술성을 지닌 박물관 건축
- 박물관 건축과 전시(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박물관
- 유물과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한 박물관(유물+다양한 전시매체의 활용)

2) 전시기본체계

(1) 분류사 중심의 전시영역 및 동선체계

분류사 중심의 전시체계는 현대사의 분야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전시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요구됨

(2) 시대사 중심의 전시영역 및 동선체계

시대사중심의 전시체계는 역사의 흐름속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전달을 위한 전시면적의 적정 때문에 어려움이 예측됨

또한 대형박물관의 특성상 시대사 중심의 전시체계를 구성할 경우 관람객에게 일방향의 전시순로를 강요하는 단점이 발생해, 관람객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적 관람이 제약되기도 하며, 순로를 잃어버릴 경우 내용에 전후 관계가 어긋나, 내용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 됨

나. 전시기본방향

■ 전시기본방향

다양한 현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개관적, 과학적인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전시 주제의 공간적 구분은 현대사에 대한 시대별 전시, 분야별 전시, 사람중심 전시를 통해 현대사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동선계획과 주제를 전개시킴

■ 공간구성

중앙의 상징홀은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구성함

어린이를 위한 전시공간도 마련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현대사의 변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알 수 있도록 구성함

■ 박물관 MI

심벌칼라, 로고타입(한글, 한자, 영문), 전용서체 등 기본적 시각 요소 디자인, 각종 정보시스템과 조화,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박물관의 통합이미지(MI) 개발이 필요

다. 전시프로그램 및 내용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를 시대사, 분류사, 인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약 11대주제, 37중주제의 전시내용 구성과 2,525점의 전시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시대사 중심 전시프로그램(안) : 4대주제 16중주제 1,717점
- 분류사 중심의 전시프로그램(안) : 4대주제 9중주제 530점
- 인물 중심 전시프로그램(안) : 3대주제 12중주제 278점

라. 전시연출 기본방향

■ 연출의 기본방향

- 실물자료 중심의 전시
- 사실감 높은 재현연출 기법 개발
-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표현방법 개발

■ 디지털 뮤지엄 구성을 위한 신기술 적용

온, 오프라인 상에서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연구, 수집-

보존, 전시-관람, 체험-학습, 관리-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미래형 디지털 박물관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경쟁력있는 한국형 박물관 발전 모델로의 발전을 지향함

4. 교육문화프로그램

가. 공연·예술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공연·예술프로그램은 시민과 전문인을 위한 공연문화센터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분명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공연, 교육, 연구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 프로그램은 추후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야 함

나. 도서·정보

국립현대사박물관의 도서정보프로그램은 도서자료실 운영 및 출판, 정보검색실 및 관광정보실 등이 있음

다. 문화행사

다양한 문화단체와의 협력으로 행사를 다양화하고,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여야 함. 가족행사, 시민 박물관, 박물관 투어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

V. 운영 및 관리계획

1. 수요추정

가. 국내 박물관 시장동향

■ 국내 박물관의 수

국내 박물관 수는 2007년 12월 현재 등록된 박물관은 511개이며 미등록 박물관은 98개로서 총 609개가 존재

■ 박물관 운영주체별 분류

주요 박물관 296개에 대해 운영주체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국립박물관은 29개, 공립박물관 75개, 사립법인박물관 106개, 학교 86개로 조사됨

■ 박물관 이용 관람객 동향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장하였으며, 현재의 위치에 설립되어 개장한 지 4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함

2006년 1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고객은 3,287,895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10,0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임

서울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06년의 관람객 수는 2,932,214명이었으며, 2007년의 관람객 수는 1,746,106명에 달하여 연 평균 관람객 수가 2,339,160명으로 집계됨

■ 관람객 수요예측

관람객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으로는 크게 나누어 시계열 예측기법, 회귀분석 기법 및 정성적 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분석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기존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략적인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년 인원 약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고, 지방에 소재해 있지만 산림 박물관의 경우도 연간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확보하기도 함

■ 국립현대사박물관 수요예측

건립예정인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경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람객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이 추진된다면 관람 수요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유사한 연간 300만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세부적인 수요예측은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나. 현대사 관련 복합문화예술시설 분석

■ 문화시설의 규모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문화시설의 규모는 전체 1,618개소로 세부적으로는 공공도서관 607 개소, 박물관 511 개소, 미술관 115 개소, 문예회관 161 개소, 문예원 225 개소임

지역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275개소), 서울(221개소), 경북(153개소), 강원(133개소), 경남(1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는 울산(17개소), 광주(32개소), 대구(40개소) 인천(41개소), 대전(42개소)의 순으로 나타남

■ 박물관의 분류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511개 박물관을 분류하면 종합박물관 45개소, 교육박물관 18개소, 역사박물관 49개소, 과학박물관 60개소, 산업박물관 99개소, 인물박물관 39개소, 민속박물관 164개소, 향토사료박물관 16개소, 종교박물관 21개소로 나타남

■ 현대사 관련 기타 시설의 현황

현대사관련 전시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내의 주요박물관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제주4.3기념관 등 기념관과 포스코박물관,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우리은행박물관 등 기업박물관, 외교사박물관, 체신박물관, 관세박물관 등 정부 부처 박물관 외에 대학박물관, 서울교육사료관, 지도박물관, 향토사박물관 등이 있음

2. 조직

가. 조직기본개념

■ 조직 목표

대한민국 현대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조직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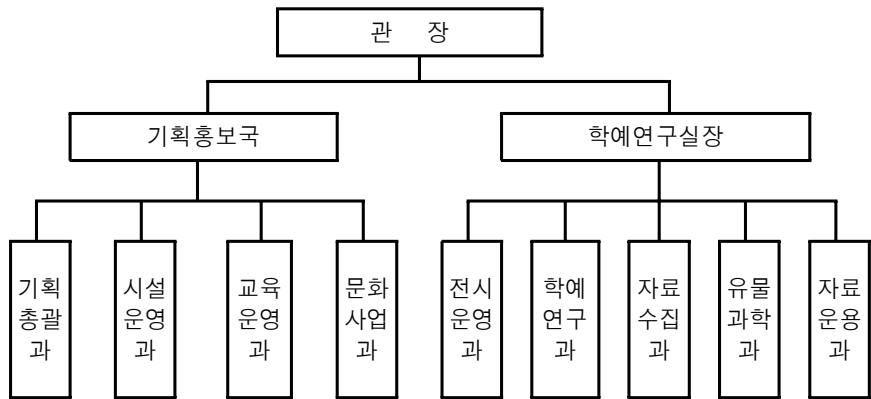
- 현대사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이룰 수 있는 전문가풀 구축
- 열린 복합문화박물관으로서의 유연한 조직 체계 구축
- 지속적 고객개발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화
- 유관기관 지원 유도 및 활용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구축

나. 조직 및 직무구성

■ 주요 직무

국립현대사박물관 조직의 주요 직무는 기획, 시설운영, 교육운영, 문화사업, 전시운영, 학예연구, 자료수집, 유물과학, 자료운용 등으로 구성됨

■ 조직구성(안) (1국, 1실, 9과)



■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안)

부서명	계획수립	설계	공사	전시준비	개관 준비	개관
	2009	2010	2011	2012 ~ 13	2014	2015
□ 관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관장)
□ 기획홍보국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국장)
○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 시설운영과	(건립과)	(건립과)	(시설과) (설비과)	(시설과) (설비과)	(시설과) (설비과)	
○ 교육운영과						
○ 문화사업과						
□ 학예연구실						(실장)
○ 전시운영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 유물과학과						
○ 자료운영과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초기단계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각 팀별에서 선발된 인력으로 TF팀을 구축하는 등 상황에 따른 순차적 인원 확보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완성해 나감

3. 운영관리계획

■ 연간 운영예산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조직을 85명으로 가정할 때 연간 총운영비는 약 105억원으로 추정됨

■ 수익사업계획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 속의 문화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함

고객의 증대는 운영에도 중요한 수익원이 됨을 인식하고, 운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원제, 교육 연구 사업 등 수익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시설관리 계획

중앙관리 시스템에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방재체계와 연계되어야 하며, I.B.S. 관계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유물 및 전시물의 보관, 관리, 전시 및 연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의 기능에 맞는 시설이 필요함

자연친화적 환기시스템, 심야전기활용, 태양열 및 대기중 잠열 이용방안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되고 적용되어야 함

전시실로의 진입과 전시실에서 외부로의 진출입은 철저히 통제된 구조로 할 필요가 있으며, 수장고의 영역은 전문직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는 박물관의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의 이러한 원칙은 출입관리 체계 아래 이루어져야 함

Ⅵ. 건립추진계획

1. 사업추진일정

■ 건립추진일정(안) (2009년~2014년, 6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건립추진일정(안)은 완공까지 총 약 7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기본계획단계를 통해 보완 및 구체화되어야 함

■ 건립 총사업비 : 1,570억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본관 청사를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570억원으로 집계됨

2. 건립추진기구 구성

건립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은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건립추진기구의 탄력적인 조직체계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일정에 따른 건립추진기구의 성격은 현재인 1단계 건립추진준비단, 2단계 건립추진단 그리고 3단계 운영기구 구성으로 전개되는 단계별 성격을 가지고 있음

조직 운영내용은 기본계획 추진, 설계 시공관리, 전시부분 지원, 건물 운영관리 지원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 후 국립현대사박물관 정상 운영 시 박물관팀에게 이관됨

특히 본격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2010년 부터는 자료수집담당자의 충원 및 임시수장고 등의 설치운영이 요청됨

VII. 종합 및 제언

1. 연구종합

■ 건립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
- 대지면적 : 6,446m²(1,950평)
- 연면적 : 28,000m² (상설 및 기획전시실 6,000m², 다목적 공연장 1,600m² 등)
- 규모 : 지하3층, 지상 5~8층 (기존 본관 활용 + 일부 증축)
- 총사업비 : 1,570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성격

- 복합문화시설로서의 현대사박물관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 기능

- 자료의 수집·보존, 전시
-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등

■ 전시내용

-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 미래를 범위로 하는 시대사 중심 전시
- 현대사의 분야별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분류사 중심 전시
- 대한민국 산업화, 선진화, 민주화에 관련된 인물 전시

2. 정책건의 및 제언

■ 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보존의 핵심기관으로 육성

- 역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 장기수집정책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
- 개관을 위한 전시대상 자료의 수집은 매우 시급함

■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의 상징 문화시설로 역할 부여

- 국립현대사박물관에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확보 필요
- 상징적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제한의 완화 등 조치 필요

■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부지확장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 현재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28,000㎡(약 8,500평) 규모에서는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역할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확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
- 미국대사관 이전부지로의 시설 확장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옥외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건립과정의 위험 요소

- 시발굴 기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련 기관 심의로 인해 기간 변경가능성 있으므로 유연한 예산운영이 요구됨
- 전시내용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존 본관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활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물의 내부공간 활용방안도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I. 서론

1. 과업 개요
2. 과업 범위
3. 과업 수행 방법

백지

1. 과업 개요

■ 과업명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 과업 배경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대통령 8.15경축사(’ 08. 8. 15)

본 연구는 광화문 ~ 승례문간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짐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근현대기 한국사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지향적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관점을 제안하며,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로의 확산 가능성과 그 전망을 제시하는 효과가 기대됨

■ 연구 기본개념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시민과 대한민국의 역동적 현대사에 대한 교육적 교감을 나누는 체계로 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다양한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복합문화센터처럼 개념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관련 학문의 정보와 전시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국가상징거리의 핵심 복합문화예술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함

2. 과업 범위

■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부 청사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일원

－ 면적 : 15,339m²(4,640평)

○ 시간적 범위

－ 개관 목표 : 2015년(예정)

－ 사업 기간 : 2009년 ~ 2014년 (6년간)

■ 내용 범위

본 연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준비 및 기본구상 검토 단계로 과정으로 개념과 건립방향 설정, 사전조사 분석, 건립 기본구상,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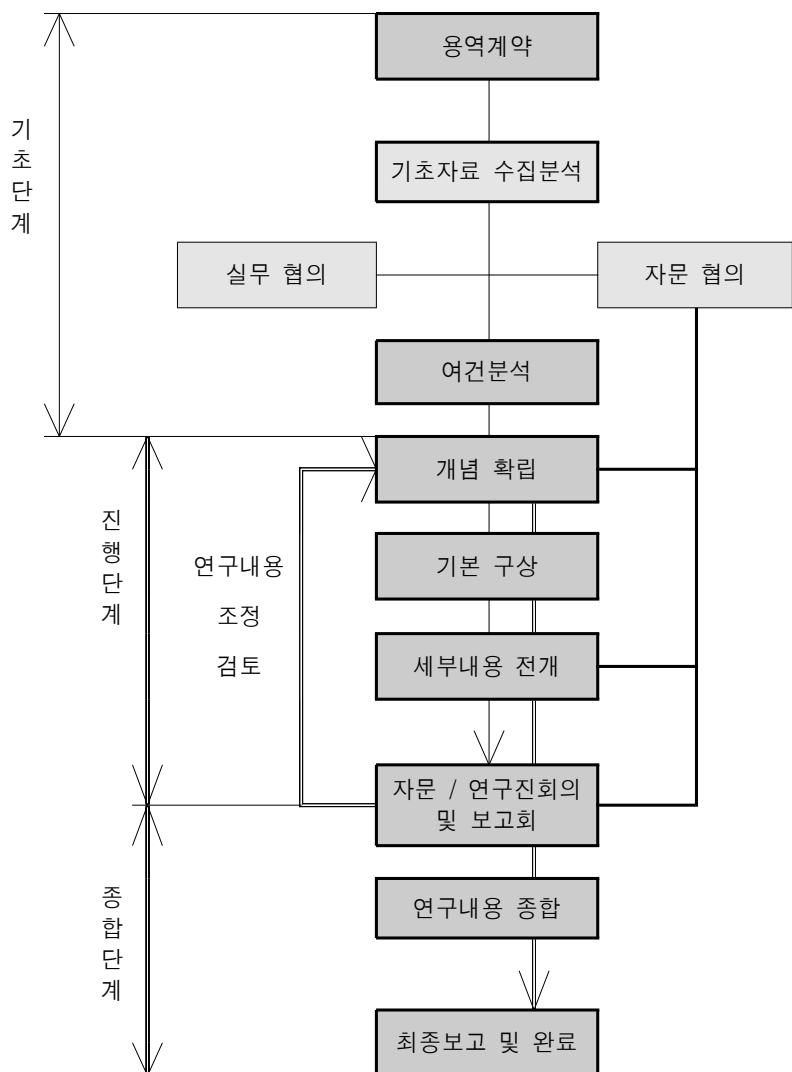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향후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구분	내용
국립현대사박물관 개념과 건립방향 설정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배경 및 필요성 박물관의 개념과 건립방향
사전조사 분석	입지 및 관련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국가상징거리조성 연계 건립 계획 수립
건립 기본구상	건축 기본구상 컬렉션 및 전시 기본구상 수요 추정 건립 규모 및 사업비 산정 박물관 운영 및 관리계획
파급효과	건립 과정의 위험요소 예측 건립 기대효과

3. 과업 수행 방법

본 연구는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진행하였음

연구의 진행은 여건 분석, 건축기본구상, 자료수집 기본구상, 전시기본구상, 수요추정, 조직 및 운영계획, 건립추진계획 및 예산수립 등의 순서로 진행됨



백지

II. 독립현대사박물관의 개념과 건립방향

1. 건립 배경 및 목적
2. 독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
3. 건립 기대효과

백지

1. 건립 배경 및 목적

가. 건립 필요성 및 배경

-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활동 중추기관
- 전시를 통해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 확산 가능성과 전망 제시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내용적·시설적 완성도 제고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현대사는 역동적이고, 성공적이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적 중추 시설이 부재함

다행히 소수의 뜻있는 개인 또는 기업과 학교기관에서 각자의 관심에 따라 개별적 분야의 현대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이들의 중요함도 미처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현대사박물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본 박물관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서울 역사문화축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연관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조성되어야 함

현재까지의 광화문 및 세종로 주변의 다양한 역사문화사업은 그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국민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황임

국립현대사박물관과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광화문 복원 사업 및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한층 더 체계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됨

또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하여 한국적 문화정체성이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추시설이 필요함

나. 목적 및 역할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 대한민국 현대사를 전시·소개하는 종합박물관
-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정보센터
- 국가상징거리의 거점 문화 편의시설

1) 성격 및 역할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현대사 관련 방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고 보존하는 대한민국 현대사 중앙 아카이브로 역할 함

또한 전시를 통해 시민과 대한민국의 역동적 현대사에 대한 교육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함.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센터처럼 개념됨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관련 학문의 정보와 전시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상징거리의 코어시설로서 역할 함

2) 박물관의 명칭

(1) 명칭대안 검토

시설의 명칭이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의 선정이 필요함

박물관의 홍보와 건립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절한 명칭 선정이 중요함

박물관 성격에 대한 오해 등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명칭의 선정이 필요함

국립현대사박물관을 위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법률적 관점, 지역·위치적 관점, 민족적·국어적 관점, 감성적 관점, 국제적 관점, 시설 기능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하였음

다양한 명칭대안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최종 대안 후보로 제안함

- 국립대한민국관
- 대한민국역사미래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현대사박물관

구분		아이디어	비고
방식	키워드		
박물관 성격	역사, 미래	국립대한민국관 대한민국역사미래관	박물관 명칭 제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법률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한국 현대사 사료관 한국 현대사 유물관 한국 현대사 전시관 한국 현대사 기념관	박물관 명칭 제외

지역 · 위치적	광화문, 육조거리, 서울, 대한민국 등	광화문 현대사기념관, 광화문 역사거리기념관	광화문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명칭으로 거리 이미지의 일관성 확보
민족적, 국어적	하나됨, 한민족, 겨레, 나라사랑, 백의민족	한빛관, 한울관, 한민족현대사관, 가온(중심)관, 가온누리관, 한우리 기념관	국립국어원 자문으로 쉬우나, 상용되지 못한 표현 발굴 필요
감성적	역사의 흔적, 역경과 극복, 도전과 응전, 미래의 희망, 한의 정서, 정수, 기록, 발자취, 진취적 기상	“숨결”	국민의 감성을 표현한 명칭 공모 가능
국제적	평화, 분단국, 경제대국	KOREA BORN, KOREA STORY	
시설기능적	복합박물관으로서 역할 강조	한국 현대사 박물관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성격을 전달하는 차별화 방안 필요
	복합문화예술센터의 역할 강조	광화문컬처플렉스 광화문아트센터 한국현대사문화관	기존 문예회관과의 차별성 확보 방안 필요

(2) 대국민 공모를 통한 명칭 선정

최근 박물관의 명칭 국민공고 사례는 경기도 효박물관(계획안)의 경우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채택한 결과를 얻게됨. 경기도 효박물관은 초기 효박물관, 설계단계 경기도효행원을 거쳐 국민공모 아이디어를 힌트로 ‘경기가족사랑효마을’로 최종결정 되기도 함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경우도 국민홍보 및 관심제고를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가 바람직함

2.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본기능에 도심형 복합문화 예술센터로서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형식의 복합박물관임

특히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중 수집·보존, 전시, 교육문화 기능은 도심 문화공간으로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핵심기능임

가. 현대사 자료 수집·보존 아카이브

1) 수집기능

(1) 기능 개요

박물관이 지향하는 성격과 정책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함. 수장 자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하며, 수집관리와 보존, 관리면에서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고려가 마련되어야 함

수집자료의 목록에 의해 수집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한 정책적인 준비와 배려가 필요함. 또한 건립준비과정에서부터 수집과 관련된 기본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전시계획에 따른 수집방법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위원회', '자료조사 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에 관한 방침의 입안 및 조정 등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집대상 물품을 구입에 의하여 취득할 경우 그 대상의 조사, 심의, 감정을 위해 구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이는 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목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진위와 수준을 가리고 또 자료의 구입 결정에 이해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2) 수집의 시급성과 수장환경 구축 필요성

현재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초기의 수집단계에 있고 그 수집 작업은 막대한 시간을 필요로 함

이에 수집은 이미 박물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장 방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우선적인 작업은 수집전문가의 확보와 임시수장고의 설치라고 할 수 있음

수장환경의 구축은 최적의 보존과학적 입장과 수장관리의 조건에 의하므로, 수장고에 끼치는 건축구조의 폐해,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파생되는 폐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동안 환경을 적응시킬 필요가 있음. 이것은 수장고를 박물관에 앞서 우선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2) 보존(수장)기능

(1) 보존환경 형성

소장품보존의 첫번째 단계는 유물자체에 처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을 평가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유물의 물리적인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보존환경을 형성하는 것임

이 단계에서는 모든 종사자들이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야 함. 경비 및 안전요원으로부터 전시기획담당자와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존처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여야 함

(2) 예방

보존의 두번째 단계는 예방이며, 소장품의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화학적 치료가 가해지는 것이 아닌 물리적

인 위치이동 등이 행해질 수 있음

소장품을 보관하거나 다른 장소에 재배치하는 것은 소장품 예방 보존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임

전시회를 기획 할 때도 보존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쾌적한 수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박물관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소장품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유물의 손상과 위험을 감소시키며, 아울러 전시, 연구, 총목록작성 등의 유물에 대한 접근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3) 수장 운영

수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집정책에 따르되, 연구와 전시 그리고 교육의 목적에 결부하여 단계별로 구축해야 함

(4) 수장관련 업무공간

■ 수장고

각종 유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시설과 설비면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건축조건이 요구됨

유물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수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행정공간

사무처리와 행정업무처리공간이 요구됨

■ 작업공간

자료의 측정과 기록 그리고 포장 등 유물의 등록과 출납에 필요한 충분한 작업공간으로 이용

나. 전시

1) 전시기능

전시는 심도 있는 내용과 흥미 있는 전시기법을 함께하여 보다 쉽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실에서 이용 가능한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전시품과 관람자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연구나 조명, 색채, 진열장, 해설방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시전문가, 그래픽 디자이너, 학예원 및 여타 전문 인력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전시는 현대사 관련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술적 연구나 교육과는 다른 흥미로우면서 체험적인 전시를 통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

전시는 교육기능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시주제와 내용을 설정하며, 상설전시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다면, 기획전시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새로운 주제전시에 활용될 수 있음

전시에 첨단 IT관련 기술, 모형, 영상, 음향, 컴퓨터그래픽을 동원하여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 함

전시공간은 전시물의 성격과 가치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함

관람객이 자유롭게 작품을 접하고 관심을 집중하여 관람객 스스로 전시물이 주는 메시지와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경험을 창출하도록 전시환경의 구축이 필요함

2) 전시의 특성

전시는 박물관과 관람객의 만남을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음. 박물관은 전시회를 통해 존재이유를 증명하고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원을 호소할 수 있음

수집품과 조사 연구의 결과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 기획 의도를 대외적으로 알려 줌으로써 관람객의 태도나 행동 성향을 수정하고,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수행함

현대 박물관은 적극적으로 관람객의 수요, 요구, 기호를 파악하여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이 중요함

관람객은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체험과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전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함. 그러므로 박물관에서는 홍보·마케팅·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람객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시의 기획 방향, 내용 등을 흡수·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관람객 집단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꾀해야 함

3) 전시의 유형과 공간구성

전시는 정보의 특성(전시물과 주체), 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시간성과 공간성), 목적에 의해 분류됨. 정보의 특성에 따라 주제전시와 교육전시(혹은 개념전시)로 나뉘고, 전시의 공간성에 따라 관내전시·관외전시, 시간성에 따라 상설전시·특별 전시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설전시

상설전시는 고정된 내용으로 잦은 교체가 쉽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주제별로 전시품을 교체하여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여야 함

다양한 종류와 재료의 유물을 상설전시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와 유물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양한 재료의 유물들에 따른 전시방법대안과 전시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수장고로부터 전시실까지의 운반에 따른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획전시

기획전시는 목적·주제·전시물·이벤트의 내용이 기획될 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전시 공간과 가변성이 필요함. 기획전시는 단순히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의 학술세미나, 특별행사 등을 동시에 기획하여 그 주제의 표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여러 종류의 기획전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전시물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전시시설 및 환경이 필요함

기획전만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매표와 단체 관람객에 대비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고려해야 함

■ 관외전시

관외전시로는 대표적으로 이동박물관이 있는데, 이는 가상공간(사이버)이나 인위적 전시물이 아닌 현장의 실제 체험을 동적으로 전시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소장품을 가지고 순회하여 더 많은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1) 교육기능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람객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새로운 조사와 연구에 의한 자료축적을 통해 전시회나 교육활동을 하며, 이용자에게 데이터 뱅크로서 정보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현대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이 새롭게 되는 원동력이 됨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이 결과를 교육하며, 학교교육을 지원함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안내투어(gallery tour), 공개강좌, 영화상영 등이 있으며, 흥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전담직제를 통해 교육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고 활성화가 필요함

편의시설인 뮤지엄 샵이나 서점의 운영은 실익뿐만 아니라 자료 보급과 정보습득의 차원에서 봉사의 장소로서 강조되어야 함

자료실을 운영하여 연구와 정보의 중추기관의 기능을 갖추고, 대소 강당이나 이벤트 홀을 갖추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복합문화예술센터의 기능으로 공공의 휴식이나 여가 활용의 장소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출판, 교육비디오 제작, 대외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등의 기능으로 마케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함

2) 국립현대사박물관 교육의 특성

교육프로그램은 전시의 성격과 개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관람객 계층의 대상별 요구에 따라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탐험·발견·의문·체험을 통해 ‘본 것’의 습득을 자극하게 됨

다양한 전시 매체를 사용하여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하여야 함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철학과 목적, 목표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특수 계층이나 관심 집단을 목표 관람객으로 설정하여야 함

교육공간은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 독립공간과 다양한 기획을 수용하는 다용도실 그리고 강의실이 필요하며, 이들 공간은 전시실과 통할 수 있겠으나 별도의 출입이 가능해야 함. 강의실은 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3) 교육문화프로그램

관내 교육은 강연·강좌·세미나 등 강의식의 프로그램과 전시물에 대한 안내 및 해석인 가이드 투어 혹은 셀프 가이드 투어와 전시실 설명, 체험 학습 위주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됨

관람객 계층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프로그램(청소년 강좌,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주부강좌, 노인대학),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안내원 양성교육과 전문 인력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됨

관외 프로그램은 순회 전시, 학교 대여 서비스, 행사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연구·교류

현대사 관련 자료에 관한 정책 연구·교류, 전문가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교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연구된 학술업적은 간행물로 출판되어 짐

■ 강좌

강좌는 정기강좌와 특별강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연과 강좌는 체계적인 지식의 전달, 명료한 개념 전달, 흥미 유발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전시실 설명

이 프로그램은 주로 30분 내지 한 시간 가량 전문가 또는 도슨트(docent)들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전시나 기획전시의 전시물을 설명함

■ 오디오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사와 함께 전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유 답변식의 질문을 제시하여 관람객들이 현대사에 관한 지

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

오디오 가이드는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PDA 등 개인휴대단말기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이 활용되고 있음

■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교의 교육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여, 교사담당자들에게 도록, 워크시트(worksheet), 슬라이드, 비디오 매체와 같은 자료를 지원하거나, 현장에 소장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체 관람과 자유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또한 현대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현대사에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지도 능력 향상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비디오 프로그램

비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의 분리된 시청각교육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음이나 관람객의 병목 현상을 줄이는데 도움 되며, 박물관 전시내용안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다큐멘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음

■ 가족 프로그램

온 가족이 휴일이나 주말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가족 단위별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가족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 계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현대사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방법임

어린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눈높

이에 맞는 색칠하기, 퍼즐, 퀴즈, 동작모형 등을 통한 놀이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프로그램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 통역 전시 설명회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로 텍스트나 레이블을 별도로 제작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올러 휠체어를 박물관 입구에 비치하고, 편안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 공연예술프로그램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공연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예술의 보급과 감상, 창조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공연,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의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 및 감상환경 창출이 필요함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이벤트에 따른 특별공연 및 상설공연,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구, 교육에 따른 발표공연,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예술체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의 홍보 및 보급, 문화예술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학교 운영, 각 급 학교와 연계된 체계적 문화예술 교육과 연구, 문화 관련 세미나 및 각종 학술행사 등 다양함

4) 편의 공간

방문객 활동의 지원공간은 조사연구가 가능한 사무공간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세미나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자료보관 기능에 대해 면적을 배분하게 됨

방문객 활동은 창조적이고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발생하므로 공간이 충분해야 하고, 각종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함

3. 건립 기대효과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 및 연구의 집대성
- 근현대기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
-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 제시
-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등의 체계적 진행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현대사 관련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 및 연구의 집대성

역동적 한국 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산업적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객관적 연구결과의 집대성

■ 근현대기 한국사 대한 이해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의 질곡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정체성을 발전시켜온 국민적 생명력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국가관 확립

■ 한국적 문화정체성의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 제시

강대국에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극복한 한국 문화의 핵심 장점을 연구, 보급

서양문화중심의 근현대 세계사 속에서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으로 당당한 한류를 일구어낸 한국인의 문화정체성을 세계로 확산

■ 국가상징거리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역사문화시설인 경복궁과 국가상징거리의 조성을 위한 기능적, 시설적 분석과 체계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백지

III. 여건분석

1. 입지 및 관련여건
2. 국내외 유사사례

백지

1. 입지 및 관련여건

가. 입지 환경

1)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부 청사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일원

■ 면적

○ 대지면적 : 15,339㎡(4,640평)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 6,446㎡(1,950평)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8,893㎡(2,690평)

* 도로 1,972㎡(597평) 포함시 총 17,311㎡



2) 대지의 특성

■ 입지조건

광화문광장 및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에 의해 인근지역이 개발되면, 새로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게 됨

기존 시설로 미국대사관(이전예정) 등과 연접하여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환경이 갖추어질 것임

■ 입지의 상징성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상징성을 갖으며, 더불어 역사적 상징성(광화문광장과 관계 등)을 갖는 위치적 상징성이 있음

■ 주변 시설

주변에는 미국대사관(이전예정), KT, 교보빌딩, 정부종합청사 등 국가를 상징하는 행정 및 업무시설이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경복궁을 비롯하여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 화랑이 연접하여 있는 도심문화벨트에 위치함

공원 및 광장시설로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있으며, 현재 광화문광장이 조성중에 있음

또한 현 기무사 및 국군서울지구 병원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전해 오거나 문화시설이 건립될 경우 보다 강화된 문화네트워크를 갖추게 될 것임

대지주변 지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보다 체계적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3) 접근성

■ 교통의 요지

본 대지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 인접하여 지하철 5분 내외 접근을 이룰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임

지하철역을 이용한 접근은 일반 개별관람객의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버스, 간선 및 지선버스가 지나고 있어 노선버스를 통한 접근도 원활함

■ 진출입 및 주차시설

보행자 주접근은 세종로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면도로를 통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며, 차량 진출입은 세종로의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도시계획적 여건을 갖고 있음

새로 신설될 주차시설은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지상과 지하에 분리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려해야 함

나. 인문사회환경

1) 인구

■ 인구

서울시의 인구는 2007.12.31 기준으로 10,422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 말 대비 65,580명(0.63%)명 증가함

세대당 가구원수는 2.58명이며, 인구밀도는 17,219명으로 나타남

■ 서울평균인

2007년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모습은 평균 40대 연령 초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남자 가구주가 아내, 2명의 자녀와 함께, 단독주택(44%)이나 아파트(3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 연령별 인구는 20대 이하가 39.0%, 30대 18.9%, 40대 12.7%, 50대 15.8%, 60대 이상 12.6%로 나타났으며, 50대 상 인구구성비가 증가하는 반면 40대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서울거주 외국인

2007년 말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은 남자가 111,467명, 여자가 117,605명으로 총 229,072명으로 남자가 48.7%, 여자가 51.3%로 나타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외국인 등록자수는 20대 이하가 6.6%, 20대 16.05, 30대 22.4%, 40대 26.5%, 50대 이상 28.4%로 나타남

■ 학생과 학생수

2007년 현재 서울시의 전체 학교 수는 2,654개로 조사되었으며, 학생 수는 2,534,757명으로 나타났음. 이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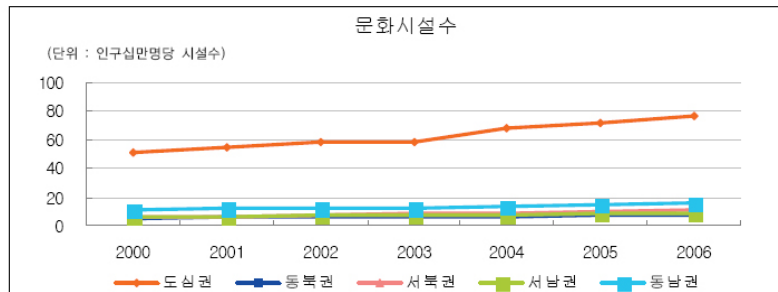
리고 중학교 1학년 까지를 단체 방문객의 대상으로 추정하면 최대 약 90만명의 방문 수요가 예측됨

구분	학교 수 (개)	학생 수 (명)	비고
서울특별시	2,654	2,534,757	
유치원	923	85,302	
- 공립	117	8,588	
- 사립	806	76,714	
초등학교	563	711,136	
- 국립	2	1,589	
- 공립	521	683,426	
- 사립	40	26,121	
중학교	363	379,188	
- 국립	2	1,684	
- 공립	251	285,584	
- 사립	110	91,920	
일반계 고등학교	214	283,153	
- 국립	2	1,294	
- 공립	72	91,850	
- 사립	140	190,009	
실업계 고등학교	78	69,870	
- 공립	19	20,266	
- 사립	59	49,604	
전문대학	12	66,852	
교육대학교	1	2,441	
대학(교)	41	446,599	
대학원	396	130,691	
기타학교	63	359,525	

2) 문화 및 복지환경

■ 문화환경은 점진적 개선 중

2007년 서울시 문화시설의 권역별 증가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설 수는 도심권이 타 권역보다 월등히 많음.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은 동남권에서는 시설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저조한 평생학습 참여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평균보다 서울의 평생학습 경험율이 4%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시민 10명 중 6-7명 정도는 평생학습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문화활동 노출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점차 개선되고 다양한 문화공연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예술관람율과 스포츠, 레저 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영화관람율은 2006년에 비해 감소(2006년 1.13 → 2007년 1.08)하고 있으며 독서율 또한 2006년에 비해 감소함(2006년 2.13 → 2007년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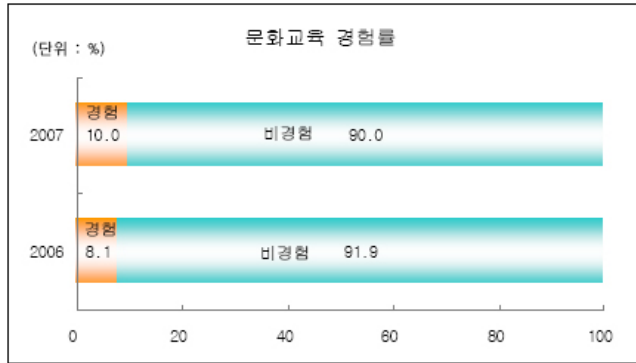
■ 기초 예술관람의 증가 추이

기초예술관람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06년과 대비하여 보면 미술관람이 큰 폭으로 증가(14.06%→16.57%)하였으며, 공연관람 또한 13.36%에서 16.45%로 증가, 관람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 함

■ 10% 미만의 저조한 문화교육경험률

2006년에 조사한 ‘전통문화관람율’ 과 ‘문화교육경험’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통문화관람 중 ‘전통문화공연관람’은 5.63%에서 17.0%로, 문화교육경험율은 8.09%에서 10.0%로 증가하였음. 전통문화공연 관람은 기초예술관람율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교

육경험을 또한 10%가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여 앞으로 문화예술 관객개발을 위해선 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줌



■ 문화시장

문화시장 환경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그다지 크게 개선된 것도 또 크게 위축된 것도 없는 상태임. 다만 기초예술관련 활동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문화산업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공연 및 전시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점차 시민문화활동이 증가하고 국민소득증가로 점차 공연 및 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전시회 건수가 늘고 있고 ‘음악’ 및 ‘연극’ 행사가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현상임.

(단위 : 건수)

	공연건수 및 전시횟수					
	계	미술전시회	국악행사	음악행사	무용행사	연극행사
2000년	7,360	3,021	1,022	2,077	663	577
2001년	7,637	3,299	789	2,251	724	556
2002년	7,445	3,383	813	1,901	666	682
2003년	7,575	3,618	787	1,800	791	579
2004년	8,410	4,075	1,040	2,023	700	572
2005년	9,233	4,583	900	2,196	952	602
2006년	11,430	5,624	1,144	2,678	917	1,067

3) 문화재

서울의 문화재수는 등록문화재의 시행 등에 따라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선 등록문화재 수가 2005년 29건에 비해 2006년 47건, 2007년 5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또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2005년도 급감했던 고궁 입장객 수는 2006년에 이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냄. 특히 복원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서울광장 조성과 더불어 ‘왕궁수문장교대식’을 펼친 ‘덕수궁’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탑골공원 유료화와 더불어 종묘로 확장된 ‘노인인구’ 덕에 종묘의 관람객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함. 반면 창경궁의 입장객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7년에 소폭 증가하였음. 이는 고궁과 관련한 새로운 매력 창출 프로젝트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줌

(단위 : 명)

	고궁 입장객 수					
	계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총 모
2000년	5,874,043	1,471,991	413,035	557,926	2,939,528	491,563
2001년	6,619,136	1,384,988	446,229	801,699	3,480,473	505,747
2002년	6,015,937	1,117,199	459,922	838,721	3,105,954	494,141
2003년	5,677,926	1,260,832	471,156	731,800	2,725,372	488,766
2004년	7,378,354	1,162,234	662,170	675,105	4,266,552	612,293
2005년	4,514,370	691,592	725,666	417,117	2,073,484	606,511
2006년	4,339,241	129,656	687,924	342,052	2,331,309	848,300
2007년	5,295,924	189,925	725,602	500,894	2,864,170	1,105,333

4) 관광환경

■ 대표 관광지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대표 관광지에 대한 조사에서 2003년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이 59.4%, 2004년 고궁 및 종묘 43.3%, 2005년 고궁 및 종묘 38.4%, 2006년 고궁 및 종묘 38.7%, 2007년 고궁 36.9%로 서울의 대표 관광지 1위로 선정됨

(단위 : %)

2003년	한강, 한강 시민공원	남산, 인왕산, 북한산	고궁, 종묘	남대문, 동대문	월드컵 경기장	63빌딩	인사동	서울 광장	코엑스몰 아셈타워
	59,4	30,3	26,5	18,7	14,4	10,6	9,8	9,0	6,4
2004년	고궁, 종묘	한강, 한강 시민공원	남대문, 동대문	남산, 인왕산, 북한산	서울광장	인사동	63빌딩	월드컵 경기장	남산 한옥마을
	43,3	29,2	25,5	20,0	13,8	13,4	13,4	9,4	8,9
2005년	고궁, 종묘	한강, 한강 시민공원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남산, 인왕산, 북한산	월드컵 경기장	63빌딩	인사동	서울 광장
	38,4	25,1	24,1	23,8	17,9	11,7	10,7	10,7	10,6
2006	고궁, 종묘	한강, 한강시민 공원	청계천	남대문, 동대문	남산, 인왕산, 북한산	63빌딩	인사동	서울광장	남산 한옥마을
	38,7	28,9	27,8	20,6	20,5	12,1	10,1	9,2	7,1
2007	고궁	남대문, 동대문	남산	인사동	한강	이태원	청계천	명동, 입구정	코엑스, 아셈타워
	36,9	16,1	9,2	7,4	6,7	6,0	4,6	4,5	2,4

2007년도 한국방문 전체 외래관광객 수는 약 6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하였으며, 이중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47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천여 명(0.15%)이 증가하였음. 서울시 방문객은 한국 전체 방문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 방문 총 외래관광객 수 대비 서울 방문비율은 2007년 73.4%로 2006년 76.8%보다 낮아졌음. 특히 2003년 85.0%를 최고점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서울을 방문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명)

	서울 방문객수	서울방문비율(%)	총 방문객수
2000	4,507,558	84,7	5,321,792
2001	4,246,443	82,5	5,147,204
2002	4,475,831	83,7	5,347,468
2003	4,039,848	85,0	4,752,762
2004	4,706,874	80,9	5,818,138
2005	4,703,769	78,1	6,022,752
2006	4,727,075	76,8	6,155,046
2007	4,733,008	73,4	6,448,241

관광안내소는 2008년 4월 현재 11개소가 있으며, 이는 2007년 보다 코엑스안내원과 글로벌센터가 신설되어 2개 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소규모이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관광안내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학문적 환경

1) 현대사 관련 학계 동향 및 관점

현재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련한 학계의 최대 이슈는 현대사교과서의 재개정에 관한 부분으로 집약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명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2월 첫째주 목요일 밤에 4인의 토론 패널과 시민논객(방청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100여 분간의 열띤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열기하였음

이 토론은 ‘근현대사교과사 좌편향인가’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 11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사 교과서 이념편향과 관련, 각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2차 수정지시공문을 보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었음

이른바 ‘좌편향 논란’ 을 불러일으킨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지난 10월말 자율수정과 수정 권고를 내린 바 있는데,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의 수정안이 미흡하다며 다시 ‘수정권고’ 가 아닌 ‘수정 지시’ 로 강도를 높인 것이 논의의 발단이 되었음

이는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포럼’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여 지속적 수정이 이루어진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지시’ 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5월 18일자로 위와 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에 대해 10여개의 역사학술단체들이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제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사 특강에 대해서도 여론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지 않고 있는 것 같음

이처럼 현대사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점과 동향은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인한 좌편향과 우편향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임

2) 종합

이와 같은 역사학계의 현대사 관련 동향을 토대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 및 대담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현대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 사업임
- 새로운 사료와 증언 등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 현대사박물관의 핵심 역할임
- 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담아야 함
- 이념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립적 용어사용하고 가급적 균형유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
- 건립위원회 등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
- 다루는 시간의 범위 설정이 중요하며, 21세기적 새로운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갖추는 것이 필요
- 현대사박물관은 이념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의 의미를 담는 박물관이 되어야 함
- 전시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담되, 가급적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증코너를 활용해 국민 개인이 소중히 간직해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라. 제도적 환경

제도적 환경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관광개발계획과 유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광개발의 진흥은 물론 각종개발에 따른 물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

관련법규는 상위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관광기본법이 있으며, 일반법으로는 관광진흥법 등 관광관련 법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발관련 법규가 있음

관련법규는 크게 상위법규와 개발법규, 개발규제법규, 세제법규, 토지법규와 특정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법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규제의 완화와 강화의 형태로 다양한 법규들이 관계되어 있음

1) 관련 상위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수정계획(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국민의 여가 생활 및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국토 재현』을 기본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환경과 조화된 문화관광 국토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박물관등의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수도권 문화창달 및 휴식공간 제공을 하나의 추진목표로 설정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숙박단지 개발, 테마형 특화 관광지역 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정비 등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혁신부문의 계획과제로 설정함

또한 장기적으로 문화관광벨트 형성 및 동북아 및 남북협력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77~2011)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 기능제고와 통일대비 기반구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크게 서울~인천의 국제교류중심축, 안산~아산만~안성의 산업도시벨트축, 가평~양평~이천의 전원도시벨트축, 포천~과주의 북방교류 벨트축으로 구분하고 있음

각 권역별 관리방안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규제 및 외곽분산과 도시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입지필수시설의 배치와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자연보존권역의 경우 한강수계의 보전에 주력하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주민의 자연환경접촉 및 여가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됨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도시근교의 삼림육장, 자연학습권, 관광농원, 국민관광지 등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연보존권역에서는 환경보존이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주민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 ~ 201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비전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환경친화형 관광한국,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

권역별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 지역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관광자원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화 관광개발, 내륙 산악·수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등을 개발전략으로 하고 있음

■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 ~ 2008)

2003년 수립된 정부의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 ~ 2008)’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문화한국건설 - 자유롭고 여유 있는 문화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함. 문화예술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서 공공박물관 500개관(인구 9만 명당 1관) 건립을 2011년까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문화강국(C-KOREA)2010

세계수준에 비해 우리 문화산업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

기술과 문화예술적 감성이 집약된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력과 민간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2) 서울시 관련계획 분석

■ 비전2015, 문화도시 서울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세계일류 도시 서울’이라는 모토로 사람 중심, 창의성, 서울의 정체성, 시민참여 등의 철학을 가지고 5개 분야, 27대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
-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지식과 창의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
-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 소외되지 않고 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도시

■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본 대지가 속해있는 지역은 지난 1983년 수립된 서울시도시계획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기본적인 제한을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따라서 본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광화문광장조성사업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은 현재 턴키방식에 의해 주관사가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12월 ~ 2009년 6월
- 규모 : 폭 100m, 연장 740m
- 사업내용 : 광장조성, 보차도 정비,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 추진목표

- 세종로 중앙에 육조거리 복원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광장 조성
- 경복궁·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조망축 확보
- 첨단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 공간확보로 관광명소화



○ 조성세부 내용

- 역사복원 Zone : 월대 재현, 해태 원위치 복원
- 조망 및 역사재현 Zone : 육조회랑, 육조라인 표지석, 육조 미니어처
- 문화 Zone : 공연·예술의 장, 세종대왕 동상 이전, 미디어폴 설치
- 도시 Zone : 첨단IT, 분수, 선큰 광장, 황토현마당 재현 등

따라서 광화문 광장의 세종로 시작점에 위치하게 될 국립현대미술관은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이 옥외광장과 조형물 가로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보완하여 실내형 복합문화시설로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시너지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제기됨

■ 국가상징거리조성계획

국가상징거리는 서울시의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의 도심1축(역사문화축)에 해당하며, 이의 구체적인 사업화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와 관련한 현재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공간적 범위

도심1축은 세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역에 이르는 축으로서, 북악산, 숙정문으로부터 경복궁, 광화문을 거쳐 세종로 주변, 복원된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청계광장,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을 거쳐 북창동, 남대문시장, 숭례문, 서울역에 이르는 범위를 대상으로 함

○ 지역 형성과정 및 현황

경복궁과 세종로에 해당하는 육조거리는 조선 건국시 정도전의 백악주산설에 의하여 조성되어 현재까지 국가상징가로서 역할하



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경성부, 조선신궁의 건설로 원형이 훼손되었고 복원을 위해 근대 수차례에 걸친 세종로 확장과 광화문 복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아직 완전한 원형복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 지역은 청계천 복원을 전후로 청계광장, 서울광장, 숭례문광장 등 광장조성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경복궁·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이 추진되는 등 국가상징로의 원형복원과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 사전기획 연구 용역이 발주되어 있어 이의 본격적이고 체계적 추진이 진행되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음

○ 국가상징가로의 역사성 회복

이 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국가상징가로서 일제에 의해 훼손된 역사성과 상징성의 회복에 있음.

광화문과 세종로로 이루어지는 상징축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광장 및 보행 네트워크

과거 육조거리인 세종로는 시민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심의 공간으로, 세종로 일대의 광장화, 보행화 계획 등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계획이 장기간 추진되어 왔음

시청 앞 서울광장과 숭례문광장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청계천 복원으로 청계광장이 조성되면서 보행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주요명소의 노후화

북창동·남대문시장(전통상업), 서울역(교통) 등 전통적 도심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명소들은 시설 낙후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이미지 저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도심전체의 경쟁력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들 지역의 기능과 활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

획과 정비방안 마련이 요구됨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도심축에 산재한 광장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구도심을 활성화는 방안이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이 보행여건 개선을 통해 도심 축에 흩어져 있는 광장 공간을 네트워크화 하는 가로형 도심활성화 프로젝트라는 것과 차별화를 갖추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토지이용·교통·건축계획 관련 제안

국가상징거리의 세종로측 시작부분의 광화문 열린마당과 인접한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외부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편의성 높은 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토지이용 관련 제안내용]

광화문광장 및 국가상징거리의 출발점인 세종로측 도로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위한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부지로 제한된 대지의 여건상 옥외공간을 기존과 같이 지상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을 것이나, 세종로측 보행자 및 관광객의 보행여건을 무엇보다 우선 배려하는 환경적, 디자인적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세종로 측에는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원형식의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상주차공간이 필요할 경우 시각적 또는 물리적 버퍼 존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국가상징거리의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기존 본관의 활용이 전제되므로 토지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며, 이는 지상뿐 아니라 지하공간의 구성에도 계획적 어려움으로 예상됨

[교통계획 관련 제안내용]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세종로 측에는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면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 접근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임

다만, 세종로 측에서 앰블런스, 소방차 등이 비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된 사용을 하는 부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경우에도 외부공간은 보행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임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부지 내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나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본관을 활용해야 하므로 지하공간 및 외부 환경 조성의 어려움이 예상됨

주차대수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하공간의 활용가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후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최소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하여야 하는 조건임

향후 부족한 주차공간과 외부공간 확보를 위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활용하게 되기를 기대함

[건축계획 관련 제안내용]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축계획적 제안사항은 건축의 상징성, 기존 건물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 검토, 건축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이중 기존건물의 활용은 오랫동안 세종로의 주요 이미지로 여겨졌던 문화체육관광부 본관과 미국대사관의 정면 파사드일 것임. 따라서 건축계획시 대한민국을 대표한 행정가로의 이미지를 활용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의 외벽은 보행공간과의 관계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의 기억과 새로운 비전이 함께하게 될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상징적 조형성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높이에 대한 제한을 기존 건축물 이하로 규정된 부분은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광화문광장 및 건너편 세종문화회관측 보행가로에서 새로운 박물관의 조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상의 배려임

○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방안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청계광장, 서울광장, 승례문에 이르는 주요 문화시설과의 보행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물리적 환경구성의 출발점이 될 것임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는 보행 접근이라는 물리적 체계이외에 내용적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또한 도심지 개별 문화시설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이들 간을 연계하는 셔틀 또는 트램을 갖추어 접근의 편의성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인사동과 사간동의 사립박물관, 갤러리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프로그램 및 패키지 티켓팅 시스템 등 개발되어 국립현대사박물관을 통해 주변지역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 및 내용적 네트워크를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함

3) 법규분석

(1) 개발행위 관련 법규

개발행위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문화재보호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후속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관련 법규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우선 대지를 2분하는 도로의 존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박물관으로의 접근을 위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

또한 경복궁과 인접해 있으며, 조선시대 육조거리에 해당하는 본 대지의 위치가 갖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공사시 지하에 유적·유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는 인류의 문화적 소산이므로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설정하여 일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특정 거리 내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특히 동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일정행위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문화재의 현상변경행위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생성인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화재 자체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의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포획, 채취, 사육하는 행위 등 문화재 보호관리 행위와 공간에서의 지형·지세, 식생, 경관과 환경의 변화를 주는 행위를 의미함

한편, 당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는 당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 환경과 경관 보존에 지장을 주고 그 모양·성질·상태 등이 달라지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1. 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국가지정문화재를 척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5조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2) 입지 및 시설기준 관련 법규

입지 및 시설관련 법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에서 시설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도 박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규모를 가이드하고 있음

또한 주차장법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법 등의 규정을 검토해야 함

■ 도시계획 및 건축법 검토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문화시설에 해당하며, 공공·문화시설이라 함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건축법상의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며,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 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말함

한편, 국립현대사박물관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는 주차장, 식당, 다방, 매점, 약국, 휴게실 등이 설치 가능하며, 국립현대사박물관과 함께 입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시설은 과학기술·학문·문화·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함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6항에 의하면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함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략-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공공·문화시설에 해당함

제 2조[기반시설] 법 제2조 제6항 각목외의 부분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의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7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96조에 의해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문화시설에 해당함

제 96조의 [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진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관한 과학관

제 97조에서는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을 설명하고 있음

제 97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제 98조에서는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설명하고 있음

제 103조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공연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지방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도시지역
 - 가. 상업지역 : 9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도시지역
가. 상업지역 : 150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8.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30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장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준을 제7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8장에서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높이 건축선등) 등을 다루고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4대문 안의 용적률은 800% 이하임

■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임

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임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임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에서 박물관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박물관의 수행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프로그램이 필요함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1종 미술관 및 박물관에는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이 있다.

유형에 따른 미술관 및 박물관 분류

구분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제1종 미술관 및 박물관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1인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 박물관의 당해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 · 도난방지시설, 온 · 습도조절 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인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인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 장치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건축 및 설치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음

주차장법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고 시설면적 150㎡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제한기준에 의하면 시설면적 최저 시설면적 200㎡당 1대 또는 시설면적 최고 시설면적 167㎡당 1대의 기준을 적용받음

시설물	최저한도	최고한도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167㎡당 1대

(3) 기타 관련법령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 문화예술법진흥법시행령

제29조 (문화강좌설치기관등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강좌 설치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설치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1. 문화강좌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2. 문화강좌를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강좌의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의 충당계획

4) 검토 종합

■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부 청사 및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일원

- 대지면적 : 15,339㎡(4,640평)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 6,446㎡(1,950평)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8,893㎡(2,690평)

* 도로 1,972㎡(597평) 포함시 총 17,311㎡

-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건축선지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주요간선도로변 도시설계(1983년) 사항

- 건폐율 : 45% , 용적률 : 670%
- 고도제한 : 기존건축물의 높이이하, 도로사선제한 0.5배이하

■ 문화재청 심의기준

- 문화재청 심의에 따라 건축의 배치, 규모 및 형태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부지에 대한 시발굴 상황에 따라 건립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관련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구역이나 아직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협조가 요구됨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의 연관성도 검토해야 함
- 박물관 및 도심 복합문화예술시설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시 고도제한의 완화 및 복층 지하차도 및 통과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함

■ 부지 활용의 문제

국립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대지의 확정임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와 광화문 시민열린미당, 그리고 통과도로의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첫 번째,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대지 규모로는 도로를 포함한 약 17,311㎡의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시민열린마당과 도로의 매입 등에 관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며, 부지 매입을 위한 별도 예산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음

두 번째, 확보된 부지인 현 문화체육관광부 대지를 건립부지로 하는 경우, 대지 확보를 위한 절차와 예산이 필요없어 바로 연속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청사 본관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를 선결해야 하는 등 건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곤란함이 있음

외부공간계획 시에는 광화문광장 및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적절한 가로 시설물을 계획해 자연스런 공간과 보행흐름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

2. 국내외 유사사례

가. 해외 박물관 및 복합문화시설 분석

1)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문화센터

(Centre National d'Art et Culture Georges-Pompidou)

■ 개요

- 위치: 19. rue Beaubourg 75004 Paris
- 설립일(개관일) : 1977년(건립기간 1972-77년)
- 규모 : 지하 2층 포함 8층 높이(너비 166m, 안길이 60m, 높이 42m)
- 면적: 연면적 31,900평 (주차장을 제외한 전공간은 82,505㎡ (약 25,460평))
- 건축비용 : 9억9,300만 프랑 (1972년 기준, 약 1,500억원)

■ 특징

퐁피두가 위치한 레알 지역은 재개발 지역으로 파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쇼핑, 식사 등이 가능하며 곳곳에서 벌어지는 퍼포먼스 등이 이루어져 볼거리가 풍부함

미술뿐 아니라 문화정보의 수집과 분류, 재생산의 장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문화유산을 풍부히 하고, 정보와 예술 창작의 확산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현대미술관, 어린이전시실, 공공정보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기능을 수용하고 있음

2) 국립미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 개요

- 위치: 14th St. and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USA
- 설립일(개관일) : 1964년
- 면적: 연면적 60,000 m²
- 소장품 : 약 1000만점
- 요금 : 무료
- 교통 : 지하철 Federal Triangle, Smithsonian 역

■ 특징

미국 역사박물관 200년간의 미국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는 박물관. 모하메드 알리의 글러브, 도로시의 슬리퍼부터 몰스의 전신기, 에디슨의 전구와 축음기, 벨의 전화, 워싱턴의 군복, 퍼스트레이디들의 드레스 등 미국사의 에피소드를 장식하는 물건들이 가득함

1946년 개관 시는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1980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음

미국의 역사 및 산업에 관련된 수집품 약 1000만 점을 6만 m²에 전시하고 있음

소장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수집품, 아메리카 인디언의 자료, 라이트 형제가 제작한 비행기, 발전기 등과 워싱턴·링컨 등 역대 대통령의 유품을 비롯하여 대통령 부인들의 생활을 찍은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고, 에디슨이나 벨 등의 발명품도 수집되어 있음

또한 우주위성으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하여 전시하는 등 미국의 최신 기술도 소개되고 있음

3) 뉴욕역사박물관

(New York Historical Society)

■ 개요

- 위치: 170 Central Park West New York, NY, USA
- 설립일(개관일) : 1804년 설립
- 홈페이지 : www.nyhistory.org
- 소장품 : 450만점 이상
- 요금 : 일반 \$10, 학생과 시니어 \$5, 성인과 동반한 12세 이하 무료
- 교통 : 지하철 81 St.역과 79 St.역을 이용

■ 특징

미국 역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 보존 · 전시하는 박물관임

설립취지는 뉴욕시를 포함해 미국의 역사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흩어지지 않게 한 곳에 모아 후세들이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당시 역사학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명사들이 함께 참여했음

현재 미국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 유품, 기념품, 회화와 공예품 등을 망라해 무려 450만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독립적인 국가 역사 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음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19세기 허드슨 강 풍경과 인근 지역의 풍속을 비롯해 조각, 가구, 각종 기장(記章), 보석, 섬유공예품, 군대용품, 기념품, 장난감 등을 소장하고 있음

박물관의 핵심인 ‘헨리 루스 3세 센터(Henry Luce III Center)’는 헨리 루스 재단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기억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임

4) 바비칸센터

(The Barbican Centre for Art and Conferences)

■ 개요

- 위치: Barbican Centre, Silk Street, London, UK
- 연혁

연도	내용
1955	전후 복구계획/ 10년간 기획 및 검토
1964	도서관, 전시장, 영화박물관, 연극음악학교 등 내용 확정
1971	건설공사 착수
1975	콘서트홀과 극장의 병용/ 회의장 기능 추가로 재설계
1977	연극 음악학교 완공
1982	극장, 콘서트 홀, 도서관, 전시장, 영화관을 완공

- 주요 기능과 규모

기능	실명	규모	내용
음악	바비칸 홀	2,000석	런던심포니의 전용 홀 또는 회의실
연극	바비칸극장	1,238석	로열 셰익스피어극단의 전용극장
	소연극장	400석	가변극장
	가변극장	400석	실험극장
전시	바비칸갤러리	1,000㎡	시각예술전시
	상업전시장	7,900㎡	상품전시
영상	영화박물관	1,280석	주제·성격을 달리한 영화상영(보존)
		2,250석	영화필름 보존 및 상영
		3,150석	영화필름 보존 및 상영
정보	정보도서관		예술관계 서적 중심의 도서관
학교	길드홀음악학교	36개	실습실

■ 특징

공연중심 복합예술센터로서 모든 공연 예술과 주요 시각 예술이 모이는 곳임. 한 시설 안에 예술학교, 교육시설, 회의시설과 공연시설이 휴게공간에 의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연극장과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전시장, 영화관, 회의장, 음식제공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5) 에도도쿄박물관

(Edo-Tokyo Museum)

■ 개요

- 위치: 東京都墨田区横綱1-4-1
- 설립일(개관일): 1993년 3월 개관 (1989년 착공 ~ 1993년 3월 개관까지 총 13년 소요)
-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 면적: 대지면적 29,293㎡, 연면적 48,000㎡, 건축면적 17,562㎡, 전시면적 10,000㎡, 수장면적 5,320㎡
- 사업비: 건축비는 586억엔, 자료수집·제작비는 56억엔, 전시비는 104억엔(100엔당 1,400원으로 환산할 경우 ㎡당 약 1,400만원의 전시공사비), 정보시스템은 28억엔으로 본관 건설비용은 586억엔이며, 분관 건설에 60억엔을 사용하여 총646억엔이 소요됨

■ 특징

에도 및 동경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전시를 통하여 시민의 이용을 제공하며 시민의 교양, 학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연회, 강습회 등을 주최하여 다양한 교육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도립박물관임

주진입은 필로티로 오픈시켜 메인 광장화된 3층에서 이뤄지며, 상설전시 관람은 3층에서 6층까지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진입하거나, 1층에서 전시층 전용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진입하도록 함

전시공간은 오픈된 대공간이므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상설전시공간은 6, 5층의 천장이 높은 거대한 공간에, 에도코너, 도쿄코너, 통사코너의 3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전시실에서는 해마다 수차례 특정테마에 의해 구성되어진 기획전시가 행해짐

6) 신국립극장

(New National Theatre, Tokyo)

■ 개요

- 위치: 東京都渋谷区本町1丁目1番1号
- 설립일(개관일) : 1997년
- 규모 : 지하3층, 지상5층
- 면적 : 대지면적 25,500㎡, 건축면적 19,489.29㎡, 연면적 68,879.22㎡
- 객석수 : 대극장 1,814석, 중극장 1,038석, 소극장 가변객석으로 340~468석

■ 특징

장중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진입로와 화사한 분위기의 현관로비를 통해 청중의 감동을 고조시키도록 유도함

신국립극장은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의 다양한 무대예술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임

연출가 및 무대기술자의 연수, 무대예술에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정보수집 및 보존과 외국과의 교류와 지역문화 진흥 등의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극장으로 대·중·소극장으로 구분된 공연장을 갖추고 있음

객석을 포함한 모든 마감재를 WOOD PANEL로 시공하였으며, 디지털(Digital) 음향장비 사용(잔향시간 1.4~1.6초)함

음향 효과를 위한 (Open Stage 상부 음향 반사판과 조명으로 가변)음향 반사판을 Open Stage까지 연출

일본예술문화 진흥회에서 운영하며, 진흥기금, 보조금수입, 공연수입, 기타수입 등의 수입구조를 갖추

7) NJ PAC

(New Jersey Performing Arts Center)

■ 개요

- 위치 : One Center Street, Newark, NJ, USA
- 대극장 2,700석
- 소극장 300석 ~ 514석(가변석)
- 레스토랑 100석 외 부대시설
- 연면적 17,580M2(5,330평)
- 사업기간 : 1988 ~ 1997년(10년공사)
- 사업비 : \$1억8700만

■ 특징

뉴저지 빈민가를 재개발하여 활성화시킨 프로젝트로, 시민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아 홀을 건립함(프루덴셜홀 등)

공연장 발코니 후면에 기부업체들의 특별실을 마련되어 있으며, 시민 기증자를 진입광장에 서명된 벽돌 마감재를 사용함

디지털 음향장비, 벽과 천정, 발코니의 가변음향시설 등 우수한 건축음향시설을 갖추

우수한 음질을 위해 객석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목재 사용하였으며, 바닥식 공조시설로 소음 최소화함

무대 상부 대형음향 반사판을 설치하여 최적의 음향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나. 국내 박물관 및 복합문화시설 분석

1) 백제역사문화관

■ 개요

-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백제역사재현단지 내)
- 설립일(개관일) : 2006년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면적: 부지면적 13,576㎡, 연면적 8,788㎡, 전시면적 약 2,700㎡

■ 특징

백제 역사와 문화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연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출토유물 전시위주에서 탈피 첨단 영상기법 및 전시매체를 활용 하여 백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함. 백제사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박물관으로서 백제문화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장소

4개의 상설전시공간 (첫마당, 백제속으로, 천명에 맡긴 삶, 백제의 문화교류)에 백제의 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음

기획전시실은 백제유물 특별전, 공예특별전, 백제관련 행사전과 같은 특별 전시공간의 성격을 지님

어린이 백제문화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문화, 백제토기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음

출토 유물의 전시가 아닌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나 역사적 사실을 축소모형이나 그래픽 또는 영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성왕의 사비천도행렬, 사비도성, 미륵사, 정지산 제사유적 등은 축소모형으로 재현하고, 금동대향로, 일본속의 백제유물, 은산별신제, 무령왕릉 등은 영상으로 설명과 함께 보여줌

2) 서울역사박물관

■ 개요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 설립일(개관일) : 2002년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면적: 건축면적 7,449.58㎡, 연면적 20,166㎡
- 유물현황 : 총 24,365점, 운현궁 유물 6,206점 별도

■ 특징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

서울의 역사·전통문화의 보존, 전시를 통한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종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의 이미지 제고

상설전시관, 기증유물전시관, 기획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실은 조선의 옛 수도 서울의 역사, 궁중 문화, 서울사람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성

학습관이 구성되어 있어 관람자가 직접 복제된 유물을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물이나 모형을 만들어서 연출한 체험공간이 마련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정보센터,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등이 운영되고 있음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역사탐험교실, 전통문화체험교실, 청소년박물관교실,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서울역사박물관체험교실, 가족체험교실, 외국인역사문화교실 등을 운영함

문화행사로는 갤러리 토크,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초서연구 세미나,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상영,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 신문로 박물관 나들이, 서울역사 박물관 국제 심포지엄 등이 있음

3) 성산아트홀

■ 개요

- 위치 : 경남 창원시 용호동 2번지
- 개관 : 2000. 4. 25. (85. 9. 설계공모, 93. 12. 착공)
-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 면적 : 대지면적 38,956㎡ (11,784평), 건축면적 9,749㎡, 연면적 : 40,890㎡ (12,369평)
- 전시시설 : 대전시설 918㎡ (2개소), 소전시실 664.8㎡ (3개소), 조각전시실 174.8㎡ (1개소), 로비전시실 373.5㎡ (1개소)
- 야외 놀이마당 : 1,130㎡ (1개소)
- 주차시설 : 488대 (지상 128대, 장애인용 14대, 지하 346대)
- 극장규모 : 대극장 14,521㎡ (1,720석), 소극장 4,464㎡ (510석)

■ 특징

7개의 전시실과 대·소극장과 함께 인공폭포, 조각공원, 야외놀이마당, 레스토랑 등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문화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양식 전문점 성산아트홀 레스토랑(1,046㎡, 400명 수용)을 비롯하여 휴게실(전시동 189㎡), 아트샵(49.5㎡), 매점(소극장 16.7㎡ / 대극장 54㎡)의 실내 편의시설과 대극장 앞 야외 휴게실(16㎡) 이 갖추어져 있음

다. 시사점

국내외 관련 시설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국내에 현대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전시하는 관련 박물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소장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학술적, 사료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박물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합공연장의 경우에도 전시시설을 갖추어 종합적인 문화시설로 변모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음

파리의 Pompidou Centre와 브뤼셀의 BOZAR와 같은 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에 위치해 시민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음은 도심의 복합문화시설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박물관의 전시기법도 교육적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 연구에 의해 수준 높은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전시와 이벤트(공연), 정보(도서)제공에 더해 도심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국내 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의 시급성
- 박물관이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시 활성화에 기여
- 교육적이고 과학적 전시기법의 전시공간 구성
- 도심문화관광의 핵심시설로서 편의기능 강화

IV.건립기본구상

1. 건축기본구상
2. 자료수집 기본구상
3. 전시기본구상
4. 교육문화프로그램

백지

1. 건축기본구상

가. 배치 및 토지이용

1) 배치계획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질적 가치추구예로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급격히 증대하는 교육, 문화예술, 여가활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함

광화문광장 및 인접한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옥외동선체계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개발로 접근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모든 계획은 대지조건 및 도시환경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함

배치계획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지 내외부의 환경적 요소와 대지 내에 건립되는 건물의 기능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확장성

건립예정지는 대지 내 증축이 이루어지면 외부공간의 여유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의 개발여부에 따라서 외부공간의 상당부분은 지상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부환경 조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현재 대지 내에는 확장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향후 증축 및 확장을 위해서는 광화문 열린마당 또는 미국대사관의 이전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서 배려할 필요가 제기됨

■ 도로와의 보존적, 시각적 관계

박물관은 세종로와 인접하게 되므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야 함

박물관은 방문객 뿐 아니라, 일반대중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박물관은 홍보와 대중적 인식의 제고를 위해

운영정책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건축적 가치의 창출도 필요함

박물관이 보이는 개성 있고 뛰어난 건축적 조형은 대중으로부터의 시각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건축적 아이덴티티와 주변으로부터 비스타를 이를 조형이 필요함. 이는 전면 세종로 등 대체로 평지를 이를 주변에서 박물관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알리는데 유효할 것임

■ 옥외전시 계획

국립현대사박물관 외부의 공간별 분위기에 맞는 조형물을 선정, 요소요소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야 함

옥외전시물 형태와 조화되는 식재 패턴으로 전시물의 경관을 연출하며, 건축물의 재질이나 형태에 조화될 수 있는 재료와 색채 등의 선택으로 일체감 있는 경관 구성을 하여야 함

옥외전시공간은 전시물과 공간분위기를 활용하여 국립현대사박물관과 인접 시설과의 조화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함

옥외 전시물 설정 시 관람자의 참여가 가능하고, 전시효과가 높은 전시물을 위주로 기획하며, 은연중에 의도된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조형물 및 전시물을 활용함

단 지상주차공간과의 안전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종로 측에는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과의 조화 속에 전시내용 및 시설물의 배치가 결정되어야 함

■ 야간환경

야간 활동의 증가를 고려하여 기념적인 건축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명계획으로 야간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건축의 외곽조명은 건축의 조형에 따라 다시 계획되어야 하지만, 낮 동안의 건축과는 다른 제 2의 얼굴로 연출되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임

외부공간의 야간 조명도 옥외전시부분과 휴식공간을 구분하여 각 기능에 맞는 조명기구를 선택, 구역별 특성을 부여함

2)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 세종로측 보행로와 지상주차공간의 적절한 조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로 제한된 부족한 외부공간을 고려하여 세종로 국가상징거리의 보행체계를 고려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대지의 여건상 외부공간에 주차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의 쾌적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의 활용방안 검토 필요

대지의 중앙에 현 문화체육관광부 본관을 활용하면서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음

특히 이 지역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감안한 때, 향후 광화문 열린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장기계획에 의해 다루어 지길 희망함

이는 주차 수요 확보차원과 함께 국립현대사박물관의 부족한 외부공간을 함께 확보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음

■ 미국대사관 이전 후 부족한 전시공간 등 확장 검토

현재 대지내로 제한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서 공연기능, 문화 이벤트 기능 등을 함께 수용하는 박물관의 여건으로 대부분의 공간이 기능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도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기대하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높은 활용도를 얻기 위해 향후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증축계획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2) 동선계획

■ 주차계획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상 본 대지로의 차량 접근은 이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진입한 차량은 지하 또는 지상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다루는 대형 트럭과 비상 또는 응급차량 등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기존 건물을 대지의 중앙에 두고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계획 및 시공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기술적 검토가 면밀히 다루어져야 함

■ 접근을 위한 동선

본 건립예정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임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계획시 건축이 표출하는 상징성과 인지도에 대한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광화문광장 및 국가상징거리의 상징적 위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분한 배려도 필요함

본 예정지로의 진입로는 차량의 접근이 매우 원활하나, 전면의 세종로는 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의 주접근로이나, 도시설계에 의해 차량은 이면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조건에 있으므로 접근 계획 시에는 이면도로로 차량을 접근시켜야 함이 전제됨

특히 이러한 동선의 문제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을 위한 서비스 차량의 진출입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건축 계획시에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가 됨

보행에 의한 접근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임. 따라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보행로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접근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박물관의 위치와 접근경

로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인(sign) 시스템이 필요함. 주변의 광화문 광장 및 인접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객 흡수를 모색하여 박물관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배려가 필요함

■ 보행자 동선

보행자는 주로 세종로측 보도를 통해 접근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본적으로 그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자의 시각 및 보행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을 이용한 보행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진입공간에서부터 여러 가지 박물관의 지원시설을 유기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으므로, 야외전시물 등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진입과 보조 보행로는 포장형태나 재료 등으로 구분, 차별화시키고, 순환동선은 자연스러운 형태와 관리측면이 고려된 재료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대상임

■ 차량동선

승용차와 대형차의 동선을 구분, 개인과 단체관람객을 분리하는 주차계획이 바람직함

차량의 내부 순환 동선은 방문객, 직원, 물품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동선이 분리됨을 원칙으로 계획함

건물 주위의 도로는 비상차량과 응급차량을 위한 비상도로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6m이상)을 고려함

유물의 운송차량은 관리부분의 수장고까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폭 및 주차를 위한 공간적 여유가 필요함

나.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검토



1) 기존 청사 시설 개요

1961년에 완공된 지상 8층의 건물로 건물의 일반적인 수명주기상 이미 노후화의 시점에 들어서 있는 건물임

본관의 뒤편으로 부속시설 및 사무공간 등이 필요에 따라 증축된 형식으로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져 다소 복잡한 시설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본관의 주위로는 주차공간이 위치하고 있음

청사의 1층에는 고객지원실, 식당, 토방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시설 개요]

구분	내용	
면적	전체 연면적 약 12,360㎡ 전체 건축면적 약 2,877㎡	본관 연면적 9,871㎡ 본관 건축면적 약 1,234㎡
건립 연도	1961년	
공간구성	○ 본관 - 1층 : 고객지원실, 안내 및 식당(토방) 등, 층고 3.98m - 2~8층 : 사무실, 층고 3.35m ○ 야외 공간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1층 평면		
외관		

2) 기존건물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 완공 후 48년 지난 노후한 건물

문화체육관광부 본관은 완공된 지 48년된 건물로 일반적으로 40~60년으로 논하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생애주기에 거의 다른 노후한 건물임

■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서울시의 대표적 초기 현대 건축물 중 서울시청사, 광화문 동아일보본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본관보다 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현재 활용되고 있음을 볼 때, 적절한 구조 및 안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경우는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박물관과는 다른 구조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근현대 건축물 박물관 시설 재활용 사례들

박물관 관련 시설의 경우는(구)대법원 청사를 활용한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를 통해 활용방안을 시사받을 수 있음.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상설계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전제로 설계안이 당선되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정면 파사드만을 보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또한 명동 옛국립극장 복원계획에서도 상징적 입면만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본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조 등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건물 활용시 투자비 대비 경제성 검토 필요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건물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개보수 비용도 투자비 대비 경제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다. 건축의 기본체계

국립현대사박물관은 현대사 자료의 수집·수장, 전시, 공연,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을 갖게 되므로 건축의 동선체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동선은 크게 이용자와 물품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이용자는 관람자(개인, 단체)와 직원으로, 물품은 일반물품과 유물로 나누어짐

따라서 박물관 계획 시에는 이들 이용자와 물품의 관계를 잘 구분하여 각 동선의 순로, 적절한 접속, 격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함

1) 동선체계

■ 사람의 동선

○ 관람객 동선

방문객들은 혼돈 없이 박물관의 주출입구로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가져야 함. 실내로 들어온 관람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전체시설을 안내하게 되지만 안내시스템을 통하지 않더라도 관람자가 혼돈 없이 시설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건축적인 명료성을 갖추면 더욱 바람직함

기본적으로 관람자는 공공영역, 전시영역으로의 접근은 자유롭고 사무·연구영역으로의 접근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비공공영역 중 특히 유물이 이동하는 경로와는 철저히 격리되어야 함

장애우를 위한 시설로서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는 시설 전체의 모든 공공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는 연구·사무 영역에의 배려를 포함함

○ 단체관람객 동선

단체관람객의 동선은 일반 소그룹의 관람객 또는 개인 관람객과 접근동선이 구분되어야 함

단체관람객의 접근이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 접근의 형식을 이루게 되므로 버스로부터 가능한 한 내부공간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이나, 본 대지는 도로의 여건상 이러한 접근에 곤란한 부분이 많으므로 기본계획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추후에 진행될 필요가 제기됨

특히 대그룹의 관람객은 일반 관람객들과의 동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한 접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실내로 들어온 단체관람객은 다시 일정의 소그룹단위로 나뉘어져 박물관의 교육담당자 또는 안내자와 함께 일정의 교육을 받은 후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전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직원 동선

직원을 위한 출입구는 일반관람객의 출입구와 분리되어야 함

또한 직원의 출입구는 개인적 용무를 갖고 박물관을 찾는 경우의 방문자의 출입구로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으므로 출입구는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하나의 출입구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

이외에 비상시를 대비한 별도의 주출입구와 비상출입구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일상적인 출입은 주출입구로 집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요구됨

직원의 동선은 전시영역, 수장 공간 및 공공영역, 교육영역, 유지관리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필요함. 다만 직원이라도 수장영역 등 전문적인 담당직원의 접근만이 허락되는 영역으로의 접근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

■ 물품의 동선

○ 유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현대사 자료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자산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위한 동선체계는 철저한 보안과 통제 및 안전이 우선됨

일반적으로 박물관으로 반입되는 자료는 트럭 등 대형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됨으로 자료의 동선은 이들 차량이 안전하게 수장고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들 서비스 차량의 동선은 직원 및 일반방문객의 차량과 구분되는 접근체계를 가져야 함

차량으로 운반된 자료는 하역장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며, 따라서 트럭의 하해를 위한 로딩 데크의 규모는 최대길이 12m의 트레일러가 직접 진입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해장을 거친 유물은 그 성격에 따라 훈증실 등의 처리실을 거처거나 혹은 직접 수장고로 들어가게 됨

유물의 서비스 동선은 일반물품과 쓰레기 처리의 반출입 동선차량과는 출입구가 구분되어야 함. 유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하역장에서 수장고, 전시실로의 이동경로는 단과 급한 경사가 없도록 함

불가피한 경우 경사가 생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사는 1/30-1/50의 범위이어야 하며, 유물의 수직이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유물전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폭3m × 높이3.6m × 깊이4m가 필요하나, 현대사박물관이라는 전시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대형의 유물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 중 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일반물품

일반물품은 유물반출입구와 별도의 반출입구를 통해 식당, 강당, 사무실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박물관의 동선 분류

동선분류	대상	
인적동선	관람객	개인
		단체
	프로그램 이용자	
	일시방문자	
	직원	
물적동선	수장품 반출입	
	일반물품 반출입	
	서비스 물품 반출입	
차량동선	승 용	방문객 (개인, 단체)
		직원
	화 물	수장품
		일반 물품
		서비스 물품

2) 조닝

박물관 건축의 공간영역을 구분하는 데는 영역간의 분리와 연계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체계와 기능 간 상호연관성 분석은 박물관의 세부기능을 조직화하는 체계 및 관리와 보안, 설비체계, 건축의 마감수준을 결정짓는 단서가 됨

- 수장품과 공공의 접근 조건에 따른 조닝
- 공공기능의 특성에 따른 조닝
- 설비조건에 따른 조닝

(1) 수장품과 공공의 접근 조건에 따른 조닝

유물(수장품)의 취급여부와 방문객 접근도의 두가지 인자에 의해 크게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인자의 조합에 의하여 P/C, P/NC, NP/C, NP/NC의 4개 영역이 구성됨

- P /C (Public / Collection)

박물관 방문자와 유물이 공존하는 영역으로서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의 공적 행위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전시기능이 이루어짐

중앙홀(로비), 상설전시, 기획전시가 이에 속함

◦ P /NC (Public / Non Collection)

방문객의 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나 유물과의 접촉은 발생하지 않는 영역으로 공공기능과 교육 기능이 대표적 기능임

주출입구홀,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등 공공영역과 교육시설(강의실), 도서자료실, 영상정보실 등이 이에 속함

◦ NP/C (Non Public / Collection)

유물관련 영역으로서 공공의 접근이 통제됨

수장고, 반입관련시설의 수장영역과 보존처리실 등의 일부 연구 영역으로 구성됨

◦ NP/NC (Non Public / Non Collection)

공공의 접근과 유물이 통제되는 영역으로서 주로 사무영역과 유지관리영역이 포함됨

관장실, 연구실, 사무실, 회의실 등의 사무영역과 제어실, 용원실, 공조실의 유지관리영역이 이에 속함

(2) 공공기능의 특성에 따른 조닝

이 조닝의 구성은 공공의 박물관 방문 목적 및 행위의 특성, 전시품과 수장품에의 접근도에 따라 공공기능이 구획되고, 하위기능들이 구성되는 형식임

형식은 크게 Public과 Non-Public Zone으로 분류되며, Public 존이 Free존과 Paid존으로 구분되는 것이 Z1「수장품과 공공의 접근조건에 따른 조닝」에서 Public 과 Non-Public으로 구분되는 것과는 분류의 성격을 달리함

- P/F (Public / Free space)

박물관 프로그램의 이용목적 뿐만이 아니라 박물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영역임. 박물관의 공공성을 모토로 한 현대 박물관의 개념에 있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역임. 이 영역에는 방문자를 위한 출입 공간이나 간이식당, 뮤지엄샵 등의 공공서비스 시설이 포함됨

- NP/A (Non-Public / Art related space)

공공의 접근이 통제되어야 하는 박물관 소장품이 관련된 영역으로, 수장관련 기능과 보존, 연구기능이 이에 포함됨

- NP/NA (Non-Public / Non-Art related space)

공공과 소장품의 접근이 제한되는 영역으로서 직원의 사무 기능과 유지관련 기능들이 이에 포함됨

(3) 설비조건에 따른 조닝

박물관에 필요한 설비에는 공기조화설비, 열원설비, 위생설비, 방재설비 등이 있으며, 이 설비체계는 박물관의 각 기능별로 특성화되어 구획됨. 특히 그 구획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기조화 설비부분인데, 공기조화설비의 조닝에 의한 세분화는 그 사용시간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전일(全日) 사용 ZONE

24시간 항온항습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으로서 수장관련 기능과 상설 전시영역이 중심이 되며, 24시간 근무기능의 특성을 갖는 전력실, 냉난방 직원실 및 당직실 등도 포함됨

- 주간(晝間) 사용 ZONE

박물관의 개관 시에만 공조가 되도록 구획되는 곳으로서 주출입 구홀, 사무, 연구기능 등이 이에 속하게 됨

- 간헐(間歇) 사용 ZONE

실 사용시간대가 불규칙할 경우 별도의 공조가 필요한데, 교육과 집회기능을 중심으로 한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교육기능이 이에 포함됨

(4) 공간조닝 상관관계

박물관의 전시, 공공편의, 교육, 공연, 연구, 수장, 사무, 유지관리 등의 기능들 간의 세부적인 상관관계는 동선 및 기능들의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영역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규모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기능과 충족되어지는 역할 등이 파악됨

공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영역의 구획과 동선계획상 각 기능의 인접성 요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공간구성은 소장품과 공공의 접근, 공공기능의 특성, 설비조건, 보안조건, 내부 마감수준 조건 등의 영역구분과 대상별 동선계획을 종합하여 공간구성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확장성 및 가변성

확장성을 결정짓는 개념은 일차적으로 건축의 외향 구조, 이차적으로는 각 부 치수의 계열화에 근거함. 현재의 단계는 현 문화체육관광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와 조건이며, 2차적으로는 주변(특히 미국대사관 이전후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의 확장을 통해 세계적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용하는 것을 확장의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

라. 기능분석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함

국가를 대표하는 현대사 관련 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외에도 광

화문이라는 위치가 요구하는 사회적 기능인 다양한 편의시설 및 관광객 정보기능, 공연 등 이벤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함

따라서 본 현대사박물관의 기능분석은 박물관으로서의 내적기능인 수집·보존, 전시, 연구, 사무, 시설관리 기능에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수용하는 부가기능인 문화교육, 공연, 관광정보제공 등이 추가되어 구성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적 판단에 기초해 박물관의 기능을 관람객 및 관광객 편의시설이 위치할 영역인 공공편의영역에서부터 접근하여 정리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시민활동의 공간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존 교육영역에 문화활동프로그램을 강화해 다목적 공연장 등을 활용한 공연예술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음

1) 공공편의영역

공공편의영역은 관람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의 진입을 위한 로비 및 주출입구홀 공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뮤지엄샵, 식당, 레스토랑 및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됨

특히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됨으로 인해 일반 박물관보다 적극적인 편의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영역에 필요한 기본 기능과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관람객의 원활한 동선흐름을 위한 유도체계
- 관람객의 동선이 혼재하고 교차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사인시스템
- 화재 등 응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대비 및 안전대비
- 관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수분, 온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설비 및 실내마감
- 공간의 변경과 성장에 대비한 가변성

- 쾌적한 휴식을 위한 가구, 색채, 자연 및 인공조명, 방음, 및 자연환경도입 휴식공간 등을 위한 실내디자인
- 각종 첨단 안내시스템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전기, 기계, 방범, 방화, 통신설비 등의 시스템

공공영역은 전시실의 폐관시간 이후에도 이용자를 위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안설계에도 유의해야 하며, 장애우를 위한 환경설계가 고려되어야 함

■ 주출입구홀 및 로비

관람객의 출입, 안내, 휴게 및 동선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시·교육 및 연구·관리영역과 동선연결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분적인 전시 및 특별 행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뮤지엄 샵

관람객 로비에 근접 위치하며, 전시 관람이 끝난 후 일정 시간동안 점유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카페테리아, 식당

관람객에게 음료, 스낵 등을 제공하게 되며, 운영방식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해외의 유명 박물관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시민들의 중요한 약속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편의시설

화장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은 관람객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하며, 적절한 사인 등 안내시설이 필요함

의무실은 응급환자를 대비해 신속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킴

2) 전시영역

전시영역은 관람객과 전시품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전시영역은 로비와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공간으로 구성되며 대단위의 관람객 동선흐름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전시공간의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전시공간의 변경과 성장에 대비한 최소의 기둥, 바닥구조의 가변성이 있는 설계
- 건축공간과 전시공간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설계
- 전시품과 관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환경 등을 위한 전시환경설계
- 관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수분, 온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설비 및 실내마감설계
- 화재 등 응급사태 발생시를 위한 비상대비설계
- 도난 등에 대한 방법 및 방재설비설계
- 쾌적한 관람을 위한 가구, 색채, 자연 및 인공조명, 방음, 및 자연환경도입 휴식 공간 등을 위한 실내디자인
- 유물 외에 첨단기법의 전시방법을 위한 전기용량 및 배선 등에 충분한 가변성이 주어진 전기, 기계, 방법, 방화, 통신설비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 기계식 교환기 등의 과도한 하중의 전시품을 위한 구조설계
- 전시품의 보존조건을 고려한 제어가 가능한 자연채광 설계
- 전시대상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수장공간과의 동선설계

■ 로비전시

전체 전시체계에 대한 개괄 정보를 제공하며, 주출입구홀과 상설

전시실 사이에 위치해서 전이공간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음. 운영의 적극성을 기하는 기획전시, 문화행사 등의 이벤트 공간이 되기도 함

■ 기획전시

시사성 있는 테마별 전시나, 현대사의 주요 사건별 주제전시 등 상설전시 이외의 주제로 연출하는 공간임

3) 교육문화영역

일반적으로 교육영역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강의실, 집회를 위한 다목적 홀, 정보의 수집과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도서·자료실로 구성됨

교육문화영역은 공공편의영역과 같이 교육, 집회 등과 같이 동선의 밀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저녁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위한 야간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교육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건축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컴퓨터와 통신장비, 수강자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온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조설비 및 실내마감
- 공간의 변경과 성장에 대비한 가변성이 있는 구조
- 쾌적한 수강을 위한 조명, 방음 등을 위한 실내디자인
- 다양한 공연 장르에 대비할 수 있는 다기능 공연장의 성능을 갖추기 위한 음향 및 영상 설비 등

4) 공연영역

보편적으로 박물관의 영역구획에서 공연영역을 별도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본 국립현대사박물관이 경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 공연 및 이벤트 기능이 부가된 복합문화공간이므로 기존의 박물관보다는 훨씬 강화된 공연기능을 필요로 함

여기에 공연예술을 수용하기 위해 다목적 공연 및 세미나 등의 문화활동프로그램 공간이 추가로 강화되어야 함

특히 공연기능이 박물관의 전시와는 별개의 구조로 프로그램 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간구획 및 기술 및 시설적 배려가 필요함

이 영역을 위한 건축요건은 다음과 같음

- 300석 이내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구성
- 객석 및 무대도 가변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
- 공연장만을 방문한 관람객을 위한 전시공간과는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로비 및 출입구 공간 등 편의시설
- 충분한 공연연출이 될 수 있도록 조명, 음향, 무대기기 등 장비에 대한 배려가 필요

5) 사무영역

사무영역은 박물관의 운영을 박물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관장실, 사무실과 회의실 및 관련공간으로 구성되어짐

사무영역은 쾌적한 업무를 위한 실내환경계획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영역을 위한 건축요건을 다음과 같음

- 쾌적한 사무를 위한 조명, 방음, 가구 등의 고려
- 인접한 회의실 등과 긴밀하게 연계된 근접동선설계
- 연구영역, 수장영역, 전시영역, 공연영역, 교육문화영역, 공공영역, 유지관리영역 등 박물관 전체와 연계된 전반 동선설계
- 화재 등 응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안전성
- 관람객과 분리된 접근 동선이 고려되어야 함

6) 연구영역

박물관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사(관)들의 사무연구공간과 유물관리 등을 위한 연구진을 위한 공간이 위치함

이 영역을 위한 건축요건을 다음과 같음

- 쾌적한 사무를 위한 조명, 방음, 가구 등의 고려
- 정보자료실, 회의실 등과 연계된 동선설계
- 업무의 성격상 다량의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 사무공간보다는 넉넉한 개인 공간 확보가 필요함
- 연구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설비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후속되는 기본계획 연구 등을 통해 공간 요건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7) 수장영역

수장영역은 수장고와 반입관련 시설 및 처리 관련 시설로 구성되며, 수장고는 일반수장고와 특별수장고로 구성함. 수장고는 유물의 보존환경과 보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박물관 건립 후 팽창의 요구가 가장 높은 공간임을 고려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본 대지의 여건상 충분한 수장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외부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장의 장기계획이 필요함

특히 현대사 관련 자료들의 크기가 경우에 따라 매우 대형의 중량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공간규모와 하중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서 후속 연구에서 전시 및 수집정책과 건축계획의 상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 수장고의 공간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조가 정지되더라도 항온항습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 화재 시에도 수장고 내는 80° C 이하의 온도로 유지되어야 함
- 외부로 부터 충해, 벌레, 먼지, 콘크리트 수분, 알칼리성 오염 인자등이 수장고 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유해한 성분은 충분히 방출될 수 있어야 하며, 수장고 내에는 항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출입관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방법설계
- 외부 진동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수대책 고려
- 특히, 수장고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는 외부의 습도제어에 적극성을 기해야 함

8) 시설관리영역

시설관리영역은 박물관의 공조설비, 전기설비 및 방재설비와 같은 건물유지를 위한 공간과 여기에 활용할 사무공간임

각종 대형의 기계장비를 위한 공간 및 하중 요건이 중요하지만, 24시간 이 공간에 근무하게 될 근무자들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모든 설비 시스템은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운영의 방침이 필요함

마. 시설규모 구상

1) 유사사례를 통한 규모 검토

국립현대사박물관 규모 산정을 위해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중대형 규모의 박물관을 조사하였으며, 면적 및 소장유물의 수는 다음과 같음

이중 국립현대사박물관과 같은 도심형이거나 관광객 및 유동인구가 풍부한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으로 볼 수 있음

박물관명	대지면적	연면적	전시면적	소장유물	전시품
	m ²	m ²	m ²	점	점
궁중유물전시관	61,205	4,122		21,311	
국립청주박물관	67,678	6,078		15,325	
국립진주박물관	15,881	6,871		7,596	
국립부여박물관	61,429	8,419		13,162	
국립제주박물관	50,572	9,287		8,450	
국립김해박물관	52,093	9,574		8,489	
국립대구박물관	101,094	10,076		20,033	
국립광주박물관	80,444	10,100		40,202	
국립전주박물관	65,289	12,789		4,768	
산림박물관	14,407	15,236		109,750	
국립민속박물관	39,626	16,142	4,903	166,558	2,249
국립서울과학관	11,230	16,500			
국립경주박물관	71,993	18,301			
국립고궁박물관	100,612	18,345			
서울역사박물관	99,584	20,166	6,285	24,365	1,085
국립중앙과학관	164,597	28,776		4,110	
국립현대미술관	66,916	37,500	14,144		350
국립중앙박물관	295,551	137,255	27,145		16,949

이상과 같은 박물관 규모 유형을 토대로 검토한 각 규모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20,000m²~40,000m²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00m ² 내외	30,000m ² 내외	40,000m ² 이상
규모 특성	지역거점 또는 특화 주제 국립박물관	서울 및 수도권 타깃 특화주제 국립박물관	국가를 대표하는 복합기능 수형

2) 국립현대사박물관 규모대안 검토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능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단, 본 현대사박물관은 입지 특성상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동시에 갖춰야하는 조건에 있으면서도 지하주차장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에 비교한 박물관들 보다 실제 박물관으로 활용 가능 한 면적에 제약이 따르는 특성이 있음

■ 기존 청사 건물 활용 방안

박물관 및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6~7m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므로 기존 청사를 활용할 경우는 2개 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간적 활용방안이 필요함

대체로 로비와 전시실 공간이 높은 층고를 요구하므로 기존 청사의 1~2층을 통합하여 1층으로 구성하고, 3~4층을 통합하여 2층으로, 5~6층을 통합하여 3층으로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임

■ 옥외공간, 주차공간

법적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대지주변에 공공조경지역의 확보가 요구되며, 연면적에 따라 주차대수(약 140~168대) 확보 필요

건물 배치상 장애인 및 관리차량을 제외한 지상주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존 청사 주차장 활용(지하 포함) 및 “광화문시민 열린마당” 부지 지하에 주차계획 수립 필요

■ 시설구성 및 규모 대안 검토

본 규모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을 검토함

-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 [1안]
- 기존 청사부지 내에서 확보 가능한 규모로 조정 [2안]
- 기존 건물만을 활용하는 방안 [3안]

구분	최대증축범위 (법적한도)	1안	2안	3안
대지면적	6,446㎡	6,446㎡	6,446㎡	6,446㎡
건축면적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2,900㎡ 청사 : 1,234㎡ 증축 : 1,666㎡	2,845㎡ 청사(본관) : 1,234㎡ 청사(별관) : 1,611㎡
	(건폐율 45% 적용)			
연면적	43,188㎡ (지하제외)	33,000㎡ 청사 : 8,000㎡ 증축 : 25,000㎡ (지하주차 5,400㎡ 포함)	28,000㎡ 청사 : 8,000㎡ 증축 : 20,000㎡ (지하주차 4,500㎡ 포함)	10,000㎡ 청사(본관) : 8,000㎡ 청사(별관) : 2,000㎡ 주차 : 기존유지
	(용적률 670% 적용)			
높이	27.43m (기존 건물 높이 이하)	27.43m (지하 3층, 지상 5~8층)	27.43m (지하 3층, 지상 5~8층)	27.43m (지상 8층)
주차대수	적용기준 : 연면적 167~200㎡ 당 1대 적용	165 ~ 198대	140 ~ 168대	50 ~ 60대 (현재 규모 가능)

- * 1안 : 시민열린마당 및 통과도로 부지의 활용이 필요함
- * 2안 : 기존 본관을 활용하며, 지상 및 지하공간을 증축함
- * 3안 : 기존 청사 건물을 활용함으로 별도의 증축은 없음

■ 각 대안별 장단점 비교

위에서 분석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청사부지 내에서 본관을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2안의 경우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시 및 수장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의 면적이 부족하므로 향후 확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구분	1안	2안	3안
	33,000㎡(약 10,000평)	28,000㎡(약 8,500평)	10,000㎡(약 3,000평)
장점	○ 복합문화시설 기능 충족 - 전시 2,000평	○ 복합문화시설 기능 충족 - 전시 1,800평	○ 공사기간 단축 가능 ○ 기계설 이설 불필요

	- 공연 300석 등	- 공연 300석 등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불필요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불필요
단점	○ 별도 부지 확보 및 도로 폐지 협의 필요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 ○ 시민열린마당 등 부지 협의 반드시 필요 ○ 기계실 이설 필요 ○ 부지 내 통과 도로 폐지문제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지구단위계획 협의 필요	○ 시민열린마당과의 연계로 부족한 옥외공간 문제 해결 필요 ○ 기계실 이설 필요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지구단위계획 협의 필요	○ 복합문화시설 기능 부족 ○ 전시규모 협소 ○ 리모델링시 구조보강 예산 필요

■ 규모 계획

위의 규모 대안에 대한 세부 영역별 면적구상(안)은 다음과 같으며, 기본계획 단계를 통해 각 영역 및 실별 요구조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다음의 규모(안)은 시설규모를 비교하기 한 수치로서, 변동가능성 있음

구 분	시설구성	주요 기능	연면적(㎡)			비고
			(1안)	(2안)	(3안)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상설 전시	5,100	4,500	1,000	
	기획전시실	특별전 기획 및 전시	1,500	1,500	1,000	
수장영역	수장고	지류, 필름 및 영상자료, 대형수장품, 생활용품 등	4,200	3,000	1,500	
	수장관련 시설	하해장, 정리실, 사진실, 소독 및 훈증실 등	600	600	500	
교육영역	도서자료실	일반도서실, 전문도서실, 자료실	500	500	300	
	정보검색실	정보자료 수집 및 검색, 관광정보 등	800	800	500	
	강의실 등	강의실, 세미나실 등	300	300	200	
공연영역	다목적 공연장	300석 규모의 복합이벤트홀	1,000	1,000	-	
	부속실	로비, 준비실 등	600	600	-	
사무 및	사무실	관장실, 사무실, 전산실,	500	300	200	

연구영역		문서고, 물품창고 등				
	연구실	학예실, 보존과학실 등	600	600	400	
	회의실 등	회의실, 문서고, 물품창고 등 기타	500	500	400	
부대시설	북카페	문화 관련 상품 및 신간서적 판매와 디지털 정보제공 중심의 카페도서관	300	300	100	
	Art Shop	문화예술창작품·각종 기념품·도서·음반·DVD 등을 판매하는 문화예술 전문 쇼핑공간	200	200	100	
	지하주차장	법정 대수 확보	5,400	4,500	-	
관리 및 공용면적	시설 유지관리	기계실, 전기·발전기실, 공조실, 방재실, 방호실, 관리 및 창고 등	3,900	3,300	1,400	
	공용면적	로비, 계단실, 복도, E/V, 화장실 등 (전체면적의 20~30%, 기존 청사 포함)	7,000	5,500	2,400	
계			33,000 (10,000평)	28,000 (8,500평)	10,000 (3,000평)	

3) 기존 건물 활용을 위한 규모 검토

기존청사(기존 본관의 연면적이 9,871㎡이며, 총 8개층으로 구성)를 활용하고 일부 공간을 증(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음

■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 및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함

또한 구조 검토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고, 건축 공간적 활용성이 제고 되었다는 전제임

기존 본관에 설치되는 전시실은 경우에 따라 2개 층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수장고는 중량물이 아닌 서적류 및 영상자료 등 비교적 소형의 경량물을 대상으로 함

기타 편의공공은 기존 본관 1층 전체를 활용한다는 전제이며, 연구와 사무공간은 주로 기존 건물에 배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교육영역의 도서자료실, 정보검색실 등은 아카이브와 같은 개념으로 가정하여 기존 본관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유지관리시설은 중량의 대형 기계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우선 증축건물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실제로 기존 본관에도 일부 냉난방 및 공조기계, 정보통신장비 등이 설치될 가능성은 남아 있음

4) 규모 검토 종합 및 제안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을 제안함

■ 규모 : 2안 (28,000㎡, 약 8,500평, 지하주차장 포함)

대한민국을 대표할 현대사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전시할 국립박물관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전시 및 수장공간을 갖추게 되므로, 효율적 공간이용계획을 통해 면적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운영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장계획이 요구됨

1안의 경우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과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전시, 교육문화, 공연 등을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미확보된 상황임

3안의 경우 투자예산을 최소화하는 비용적 절감효과는 있지만, 현대적 기술을 활용하고 적용할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해야하는 기본 기능에도 부족한 공간으로 보임

■ 기존건물 활용여부 :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결정

향후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각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건물 활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영역별 규모 검토

(1) 전시영역

■ 전시면적 예측

정확한 전시면적 산정을 위해서는 전시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전시품수와 전시모드를 결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나, 이는 후속 연구인 기본계획 연구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박물관의 전시면적 비교를 통해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면적을 추정하였음

박물관 연면적이 28,000㎡ 일 때, 사례의 평균 비율인 30%를 적용하면 약 8,400㎡가 필요하게 되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다목적 공연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면적을 6,000㎡로 축소함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전시 및 수장부문 면적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 박물관	국립현대사 박물관	평균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연면적	28,000㎡	—	137,255㎡	16,142㎡	20,166㎡	37,500㎡
전시면적	6,000㎡	—	27,145㎡	4,903㎡	6,285㎡	14,144㎡
연면적 대비	21.4%	29.78%	19.8%	30.4%	31.2%	37.7%

■ 어린이전시실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 배려는 최근 중대형 박물관에서는 보편적인 경향임. 이는 어린이가 보이는 행태 및 교육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박물관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간의 여건상 최대 1.5개 코너의 크기인 216㎡ 이내의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설전시실내에도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법을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와 기법을 적용하여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을 고려하기를 기대함

■ 전시면적과 관람시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모드는 상징전시, 재현전시, 사료전시, 설명전시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각 전시모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적정 관람시간과 전시밀도를 설정할 수 있음

대체로 한 전시품당 관람시간 또는 벽면길이 당 관람시간, 전시중 주제(코너) 당 관람시간 예측 등을 통해 전시면적을 산출할 수 있음

[검토 1] 전시 코너(중주제) 당 평균 관람시간을 2분으로 기대

○ $12\text{m} \times 12\text{m}$ 의 공간을 하나의 전시코너로 가정하면 약 45개의 전시코너 구성가능

○ $6,000\text{m}^2 \div 144\text{m}^2 = 41.67(\text{개}, \text{전시코너})$

○ $41\text{개 전시코너} \times 2\text{분} = 82\text{분}$

[검토 2] 전시 벽면길이 10m당 평균 관람시간을 1분으로 기대

○ $6,000\text{m}^2 \div 12\text{m}(\text{전시코너 한측 길이 가정}) \times 2(\text{양측전시 가정}) = 1,000\text{m}$ 전체 전시벽면길이 $1,000\text{m} \times 1\text{분}/10\text{m} = 100\text{분}$ 으로 산출될 수 있음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관람 기대시간은 약 1시간 30분으로 추정 가능함

(2) 수장영역

■ 기능

국립현대사박물관은 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수장영역의 구성도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장영역은 자료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보존 과학적 처리 및 데이터 작성을 위한 첨단 유물 관측 및 기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수장품의 종류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료의 재질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수장환경이 갖추어져야 함. 특히 대형의 자료가 입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비한 자료의 입출납 가능공간도 마련되기를 기대함

■ 규모

수장영역의 규모는 박물관 전체 연면적 대비 10~20%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그러나 어떤 박물관의 경우에도 수장고는 결국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공통적 현상을 보이므로, 가급적 초기 수장규모 계획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대지의 여건상 여의치 않을 경우는 향후 증축에 대비한 장기 수장마스터플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본 박물관에서는 보존과학 및 소장품 데이터 처리시설 등을 포함하여 약 3,600㎡의 수장공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개관 단계까지의 수집품 될 소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개관 후 수장공간의 증축 및 별도부지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함

(3) 공연영역

■ 기능

본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본 교육기능에 문화예술기능을 강화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공간적 시설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강당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적 배려가 필요함

■ 좌석수 및 공연시설

본 박물관의 다목적 공연장은 좌석수를 250~300석 규모의 소공

연장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인접한 세종문화회관의 소공연장이 400여석임을 고려하여 중복되지 않는 규모로 축소하여 산정하였음

공연장 객석규모는 좌석 1석당 0.8~1㎡의 범위에 있으며, 무대는 주무대 약 240㎡에 공연장에 따라 측무대 및 후무대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주무대의 1~2배의 공간이 필요하며, 공연자들을 위한 연습실 및 편의시설과 조명 및 음향실 등의 기술실을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본 박물관의 다목적 공연장은 객석 300㎡, 무대 380㎡, 연습실 등 300㎡, 기술실 등 최소 약 1,000㎡의 공간이 필요함

또한 공연이 박물관의 운영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객들을 위한 충분한 편의공간이 필요하여, 약 600㎡의 로비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함

(4) 교육영역

■ 기능

관람객에게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물관은 도서관자료실을 운영하게 되며, 본 박물관은 일반적 도서관자료제공 기능에 국가상징거리 및 광화문광장 등에 관한 관광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추가하였음

■ 규모

도서·정보자료실의 규모는 도서자료실 500㎡, 정보검색실 800㎡, 강의실 300㎡를 포함하여 약 1,600㎡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장래 확장 및 증축에 대한 대비

■ 미국대사관 이전 부지로의 확장 계획 수립 필요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현대사박물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시 및 수장공간 등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대사관 이전 부지 등으로의 확장계획 수립이 요구됨

2. 자료수집 기본구상

가.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1) 기본방향

관련자료 수집은 장기계획과 전략을 필요로 함

체계적인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구입, 기증, 감정, 조사활동, 대여, 위탁 등 다양한 수집과정을 담당할 위원회의 발족이 필요하며, 자료의 수집절차, 등록과 서류화 전담부서의 인력조직도 필요함

수집정보는 유물의 수집·관리 정책에 따라 실물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디지털 자료화 하여야 함

직접수집과 구입, 소장가 또는 소장기관과의 기증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입수함

유물보관실(수장고)을 제2의 전시실로 운영하여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함

2) 수집정책 기획방안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은 자료수집으로 시작되므로, 자료의 수집은 단기 및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여야 함

■ 수집정책

‘수집정책’이란 소장품을 수집·감정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므로 소장품의 수집활동과 관리에 따른 소장품 수집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함

■ 단기계획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에 따라 개관을 대비하여 각 부문별 전시목록에 맞는 자료를 일차적으로 수집함

■ 장기계획

장기계획에 의한 수집대상은 전시가 완료된 상태에서 연구용, 교육용, 특별전을 위한 자료, 상설전시를 위한 교체전시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박물관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자료를 지속적 수집이 필요함

나. 자료수집 규모계획

1) 자료수집 규모 검토

(1) 전시면적을 통한 수집 규모 추정

[검토 1] 상설전시실 전시 코너(중주제) 당 소주제를 4개로 가정하고 소주제당 평균 전시품수를 10점으로 가정할 경우

- $4,500\text{m}^2 \div 144\text{m}^2 = 31.25\text{코너}$
- $31\text{코너} \times 4\text{소주제} \times 10\text{점} = 1,240\text{점}$
- 최종 전시품을 선정하기 위해 최소 2~3배의 수집품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면 수집품의 최소수량은 2,480점 ~ 3,720점으로 최소와 최대의 중간 값인 약 3,100점을 개관시 상설전시를 위한 최소 수집품수로 산정

(2) 유사사례를 통한 수집 규모 추정

국내 주요 박물관의 전시면적 대비 전시품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전시면적 3.2m^2 당 전시품 1점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상설전시면적에 적용하면 약 1,875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서울역사박물관의 개관당시 소장품수가 2만점을 상회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수집 규모를 책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수집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상설전시실에 직접 전시될 수량 : 1,240점~1,875점
- 상설전시를 위한 여유 수량 감안 : 2,480점 ~ 3,720점
- 개관을 위한 수집 목표량 : 20,000점

■ 국내 박물관 사례 비교

구분 \ 박물관	현대사 박물관	평균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부지면적	6,446㎡	—	295,551㎡	39,626㎡	99,584㎡	66,916㎡
	1,950평	—	89,404평	11,987평	30,206평	20,242평
건축연면적	28,000㎡	—	137,255㎡	16,142㎡	20,166㎡	37,500㎡
	8,500평	—	41,520평	4,883평	6,100평	11,344평
전시면적	6,000㎡ 상설 4,500㎡	—	27,145㎡	4,903㎡	6,285㎡	14,144㎡
	1,800평	—	8,211평	1,483평	1,901평	4,279평
연면적 대비	21.4%	29.78%	19.8%	30.4%	31.2%	37.7%
전시품 수량	1,875점	—	16,949점	2,249점	1,085점	350점
전시면적대비	3.2㎡/점	3.2㎡/점 (현대미술관 제외)	1.61㎡/점	2.18㎡/점	5.8㎡/점	40.42㎡/점

■ 해외 박물관 사례

박물관 구 분	日本 江戸東京 博物館	日本 大阪 歴史博物館	미국 시카고 산업박물관	독일 근현대사 박물관	비고
부지면적	29,293㎡	13,000㎡	—	—	
	8,861평	3,933평	—	—	
건축연면적	48,000㎡	23,649㎡	62,237㎡	4,700㎡	
	14,520평	7,154평	18,826평	1,422평	
전시면적	10,000㎡		28,651㎡	2,600㎡	
	3,025평		8,667평	787평	
연면적 대비	20.8%		46.0%	55.3%	
전시품 수량	2,500점 (대형모형 50점)		2,000건		

(3) 전시프로그램을 통한 전시품 수 산정

박물관의 전시품수는 다음과 같이 전시프로그램의 구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전시프로그램에서는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로 전시내용의 위계를 구분하는 데 이중 소주제에서 전시품목과 그 수량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구체적인 전시품목과 수량은 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시프로그램 확정이 된 후에 진행될 수 있음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목	수량	표현지침	비고
유신체제와 중화학 공업화	고도성장의 지속과 중동건설 붐	오일쇼크 오일머니	도표와 사진	1	패널설치 사진자료 활용	
		중동건설 붐	'중동의 한국인'	1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문화영화	동영상 (1975년)
		우리 할아버지 (중동건설현장 참여 실존인물)	밀랍인형과 복장	1식	육성과 현장을	

다. 자료수집 방안

1) 자료수집 개요

■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으로 자료수집은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설립취지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함

자료수집기준은 출처, 이전의 소유권, 사용용도, 분류정보에 관한 분석, 자료를 소장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의 수용능력 등 고려

자료의 소유권과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회(ICOM)에 의해 지정된 자료수집윤리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에 의해 취득된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수용하면 안된다.)에 적합해야 함

■ 수집 활동

수집자료는 그 가치와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들이 교육 자료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장품들은 최적상태로 관리 보존되어야 하며, 바르게 사용되어야 함

자료수집은 처분규정과 상호의존적이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품은 원칙적으로 매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어야만 함

기증자에 대한 정보는 소장품등록문서들과 함께 기록, 보관되어지며 기증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전시되지 못함

■ 수집방법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장품은 직접수집과 발굴, 구입, 기증(증여, 유증),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교환, 양도(반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음

수집정보로는 도서, 잡지, 녹음테이프 등의 자료와 함께 CD, DVD 등 최신 전자 정보자료를 모두 포함함

2) 자료수집 절차

■ 수집위원회 또는 유물구입위원회의 설치

박물관의 자료구입은 관내의 전문가와 관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구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게 되며, 이들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유물의 구입에 대한 판단여부가 결정되게 됨

따라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자료구입을 위한 자료수집위원회 등의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자료구입

자료구입은 박물관이 소장품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임

자료구입 공고를 통해 박물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의 주제,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자료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은 자료에 관한 서류(유물매도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의 유물구입 담당팀에 이를 제출하고 박물관은 이를 자료수집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구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구조임

■ 자료 기증 및 위탁

자료 기증 및 위탁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 후 자료 기증 또는 위탁의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박물관 자료구입팀에 연락하면 자료구입팀이 기증자를 방문하여 자료를 기증받는 과정으로 구성됨

기증 또는 위탁된 자료는 기증자의 송고한 뜻을 기려 기증(위탁) 자료의 기획(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또 다른 기증(위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함

■ 자료 기증을 위한 전국적 홍보 필요

자료기증 운동을 통해 자료의 입수뿐만 아니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되므로 전시품목 및 수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전국민적 홍보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3. 전시기본구상

가. 전시기본개념 및 체계

1) 전시기본개념 및 목적

■ 목적

국립현대사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대한민국의 역동적 현대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시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 학습을 통해 체험적인 새로운 정보를 얻는 발견의 장으로의 역할

학문적 정보와 체험교육이 있는 흥미로운 문화공간으로 역할

■ 기본개념

- 유물과 사람이 있는 전시
- 조형미와 예술성을 지닌 박물관 건축
- 박물관 건축과 전시(콘텐츠)가 조화를 이룬 박물관
- 유물과 첨단 전시기법을 활용한 박물관(유물+다양한 전시매체의 활용)

■ 전시구성

대한민국 현대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근현대~미래를 포괄하는 시대사적인 전시와, 분류중심의 전시, 주제중심의 전시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

또한 5천년 역사를 지닌 우리민족의 국가경영 전통 및 경륜과 대한민국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근대사부분을 도입부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시기본체계

(1) 분류사 중심의 전시영역 및 동선체계

분류사 중심의 전시체계는 현대사의 분야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전시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대적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요구됨

다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보편적 분류체계에 의한 주요 전시내용의 예시임

분류체계	주요 전시내용
정치사	남북관계, 외교·안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인물 등
경제사	산업화, 근대화, 기업, 경제제도, 화폐, 인물 등
사회사	의·식·주생활, 생활사, 사회상, 해외이민, 인물 등
문화사	문학(시·소설 등), 음악(고전·대중), 미술, 스포츠, 방송, 영화, 만화, 인물 등

(2) 시대사 중심의 전시영역 및 동선체계

시대사중심의 전시체계는 역사의 흐름 속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연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전달을 위한 전시면적 적정 배분에 어려움이 예측됨

또한 대형박물관의 특성상 시대사 중심의 전시체계를 구성할 경우 관람객에게 일방향의 전시순로를 강요하는 단점이 발생해, 관람객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적 관람이 제약되기도 하며, 순로를 잃어버릴 경우 내용에 전후 관계가 어긋나, 내용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 됨

분류체계	주요 전시내용
해방과 정부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항복과 8.15광복 • 대한민국의 성립과 민족의 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정과 정부수립 • 한국전쟁(남침, 인천상륙작전, 중국개입, 정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 대한민국의 성장(민주주의의 진통, 경제 재건과 자립 모색 등) • 4·19 민주혁명과 민주주의의 성장과 진통
근대화와 중앙집권적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6 쿠데타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과 전개 • 유신체제와 수출한국 • 민주주의의 시련 • 시민사회의 성장
올림픽과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시대의 개막 • 민족통일을 위한 밑거름 • 시장경제의 발전과 IMF 외환위기 • 세계화의 물결
선진 한국을 위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 • 선진화의 과제

나. 전시기본방향

1) 전시기본방향

국립현대사박물관은 현대사를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복합박물관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함

다양한 현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개관적, 과학적인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전시 주제의 공간적 구분은 현대사에 대한 시대별 전시, 분야별 전시, 사람중심 전시를 통해 현대사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동선계획과 주제를 전개시킴

2) 공간구성

중앙의 상징홀은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을 구성함

현대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전달은 실물전시와 각종 통계자료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함

어린이를 위한 전시공간도 마련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현대사의 변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알 수 있도록 구성함

- 전시영역 구성 및 동선체계
 - 전시의 배치와 구성에 따른 동선계획
 - 관람의 코스와 동선계획(주요동선, 순회형 동선, 목적형 및 관리 동선 등)
- 건축 프로그램과 동선체계
 - 관람객 편의영역(공공영역) : 다양한 공공활동을 수용하는 공간계획
 - 관람객 전시영역 : 건축계획상의 기본개념과 전시의 기본개념을 최대한 통합

3) 전시연출 방법 및 매체

- 유물, 복제 모형, 기념물 이전·복원 등
- 패널, 터치스크린, 동영상, 단말기 등
- 첨단 디지털박물관 구성을 위한 UT, IT기술 개발 및 활용

4) 박물관 MI 구상

- 심벌칼라, 로고타입(한글, 한자, 영문), 전용서체 등 기본적 시각요소 디자인
- 각종 정보시스템과 조화,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박물관의 통합이미지(MI) 개발

다. 전시프로그램 및 내용

1) 시대사 중심 전시프로그램(안)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수량
근대사회와 민족 독립운동	대한제국의 성립과 국권 상실	개항	세계지도	1
			고종 어진	1
			흥선대원군 사진	1
			척화비	1
			운요호 사진	1
			천주교박해 상상도	1
			수신사 삽화	1
			명성황후 삽화	1
			심행일기	1
			조일수호조규	1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
			조영수호통상조약	1
		개화의 물결	개화당 인물사진	1
			조선책략	1
			별기군 사진	1
			한성순보	10
			당오전	10
			동학농민봉기 상상도 등	5
			갑신일록	1
			동경대전	1
			청일전쟁 관련 삽화 등	10
		서구문명의 도입과 적용	부산 등 주요 개항장 사진자료	10
			마을의 족계	1
			베를(또는 사진)	1
			개량 직기(또는 사진)	1
			대한천일은행 등 회계장부	5
			서울 거리사진	5
		근대 국가의 모색	서유견문	1
			개화파 인물사진	5
			갑오경장 이후 정부 조직도	1
			일반인 사진 자료	10
			을미사변 상상도	1
			건청궁, 러시아 공사관 등 사진	5
			원구단 사진	1
			고종황제 정복 사진	1
			독립문 건립당시 사진	1
			독립신문 창간호	1
			만민공동회 사진 등	5
			백동화	10
			윤치호 일기	1

	대한제국의 위기와 극복 노력		광무양안	1
			러일전쟁 관련 사진	10
			을사조약 문서	1
			통감부 사진 등	2
			이토 히로부미 사진 등	2
			초기 한국은행권	10
			만국평화회의 관련 인물사진 등	10
			최익현 등 의병운동사진	10
			대한자강협회보	1
			해외이민 사진 등	10
			서울의 전차 사진 등	5
			경인선 개통기념사진 등	5
			초창기 사립학교사진 등	5
			종두법 관련 자료	5
			서유견문	1
			초기 번역 성서	3
			황성신문	5
			혈의누 등 신소설	5
			앨런 등 선교사 사진	10
			손병희, 신채호, 한용운 등 사진	10
			안중근 사진, 상상도 등	5
			순종 어진	1
			이완용 내각 자료	5
	일제 강점과 민족 독립운동	일제 강점	한일병합에 관한 관보	1
			영친왕과 이방자여사 사진	1
			1910년대 황실 기념사진	1
			초기 조선총독부 청사 관련 사진 등	10
			치안유지법	1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토지대장, 사진 등	5
			대한제국 수리조합조례	1
			총독부 편찬 조선사 37권 1질	1
			서당과 보통학교 사진	10
			신사참배 관련 사진	5
			창씨개명 자료	10
			국가총동원법 자료	5
			국민징용령 자료	5
			여자정신근로령 자료	10
			병력동원을 위한 각종 법령	5
		일제 강점기의 경제적 변화	회사령	1
			조선은행, 식산은행 사진자료	2
			대구은행, 호서은행 등 민간은행 자료	10
			서울의 변화 사진 및 문헌자료	10
			흥남공단 조선절소비료주식회사 등	5

		사진	사진	
			경성방직 주식회사 사진자료	5
			지주제 관련 문서자료	5
		근대화를 위한 노력과 민족문화	형평사 운동 포스터 등 자료	5
			만성대동보	1
			만문만화 삽화자료	10
			국민복, 몸빼(왜 바지)	2
			문화주택, 영단주택 사진	2
			중국음식, 일본음식, 기호식품 자료	5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사진들	10
			한국어사전(1920년)	1
			한글맞춤법통일안	1
			조선어학회 관련 사진 자료	10
			여유당전서(1936)	1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조선사연구초	2
			진단학보	1
			문학과 예술인 사진자료	20
		민족 독립운동	3·1운동 관련 사진	10
			3·1독립선언서	1
			해외독립운동단체 사진자료	3
			제암리학살사건 사진 자료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사진	5
			대한민국임시헌장	1
			독립공채	1
			해외독립운동 사진자료 등	10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호	2
			물산장려운동	10
			항일학생운동 자료	10
			공산주의정당, 신간회 등 자료	5
			중일·태평양전쟁 자료	10
			항일투쟁 열사들 자료	10
			충칭임시정부와 광복군 자료	5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과 외교활동	5
			카이로선언	1
			해방과 정부수립 사진자료	5
해방과 정부수립	대한민국의 성립과 민족의 분단	민족 분단의 아픔과 남북의 사회경제	38도선 표시 사진 자료	5
			서울의 미군, 원산의 소련군 자료	2
			건국준비위원회 자료	5
			해방과 민중의 합성 사진자료	5
			조선인민공화국 관련 자료	5
			한국민주당, 독립총성중앙협의회 자료	5
			조선경제통계요람	1
			신탁과 반탁 관련 자료	10
			모스크바 3상회의	3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련 자료	5

			통일정부 수립 논의 자료	3
			5·10선거 자료	10
		5·10선거와 제헌	제헌헌법	1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 사진 자료	1
			제헌의원 출신 자료 등 관련자료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자료	1
			제3차 유엔총회 자료	1
		건국초기 시련과 과제	4·3사건 관련 자료	10
			국가보안법, 국토완정론	2
			반민족행위처벌법 관련 자료	10
			농지개혁 자료	5
			지가증권	3
			귀속재산 처분 자료	5
	한국전쟁	생사의 기로에서 (남침)	철모	1
			총탄	3
			탄피	1
			포탄	1
			호루라기	3
			수류탄	2
			군번(줄)	1
			반합	1
			한미군사원조협정	1
			조선인민군 창설 자료	1
			애치슨 라인	1
			T-34탱크 사진 등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파병 결의	1
			파병 16개국 기념 유물	16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의 개입	인천상륙작전 사진, 영상 등	10
			서울수복 사진 자료 등	10
			중화인민공화국의 개입 자료	10
			흥남철수 자료	10
		휴전과 남북의 대응	정전회담 사진 자료 등	10
			군사전전위원회 자료 등	10
			비무장지대 설치 자료 등	10
			중립국감시위원단 자료	5
			반공포로 석방 자료	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기 사진 자 료	5
			거제도포로수용소 자료	10
			한미상호방위조약	1
대한민국의 성장	민주주의의 진통		해방촌 등 민중삶 사진 자료	1
			발체개헌안 관련 자료	5
			사사오입개헌	5
			1956년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자 료	5

근대화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조봉암 사건	1
			한국정치의 양당 구조 관련 자료	5
		경제 재건을 위한 노력	통화개혁(1953) 자료	10
			원과 환	10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자료	5
			미국정부의 원조와 대총자금 자료	5
			수입대체공업화와 3백산업 자료	10
			대일강화조약(1951)과 이승만 라인	5
			구보타 망언	1
			경제위기와 자유당의 안이함 관련 자료	5
		시민 사회·문화의 변화모습	국민교육 보급 관련 통계자료	10
			각종 연구소 설립자료	2
			대중문화 보급의 통로 ‘영화관’	5
			자유부인 등 영화포스터	10
			기독교의 발전(교회, 학교 등)	5
			1950년대 농촌생활 통계자료 등	5
	4·19 민주혁명과 민주주의 성장의 진통	4·19 민주혁명	3·15 부정선거 자료	10
			학생시위 자료(대구, 마산 등)	10
			4·19민주혁명	10
			계엄령과 이승만대통령 하야 자료	5
			과도정부와 내각책임제 개헌 자료	5
			제5대 국회 관련 자료	5
			민주당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 자료	3
		정치 노선의 갈등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통일 연맹 등의 활동 자료	10
			신·구파의 대립과 신민당 창당	3
			남북연방제(1960) 관련 자료	3
	5·16쿠데타	쿠데타의 배경	권위주의적 통치와 자유당의 부패	5
			정군운동 자료	3
			6·25와 군부의 성장	2
			젊은 군인들의 정책(추진과 실용)	5
		군사정부의 활동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관련 자료	10
			혁명공약	1
			정치깡패	3
			전국경제인연합회 결성자료	3
			화폐개혁	10
		민간정부로 의 이행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	10
			박정희 정부의 출범	5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 자료	10
	경제개발 체제의 전개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경제기획원 설립	3
			경제발전 장기계획	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공업화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5
		경제개발을	케네디라운드	5

		위한 대외관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5
			1965년 한일협정 조인	5
			한일회담	10
			베트남 전쟁	10
		경제성장 초기의 경제와 정치	수출가공무역	20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현장	10
			고속도로 건설	10
			포항제철소	10
			6.3 학생시위	10
			3선 개헌	10
			1.21청와대 기습사건	5
			닉슨 독트린	3
			이승복 어린이	5
			국민교육헌장	5
			1971년 대통령선거와 포폴리즘	5
			파독 광부와 간호사	5
			서울로의 인구집중	5
			서울의 달동네	10
			경기도 광주 대단리로의 이주	5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운동	10
			노동운동가	5
	유신체제와 경제개발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5
			유신체제	5
			통일주체국민회의	3
			7.4남북공동성명	10
			미·중 수교	3
			8.3긴급조치	3
		중화학 공업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	10
			지방의 중공업 단지 건설	10
			중동건설 붐	10
			100억불 수출	3
			오일쇼크	5
			대기업의 성장	5
		국토개발과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	10
			4대강 유역 종합개발	10
			새마을 운동	10
			통일벼와 쌀생산량의 증가	5
			초가집과 슬레이트지붕집	5
		제3공화국의 종언	김대중 납치사건	10
			인혁당 사건	10
			10.26 사건	10
	또 다른 군사정부 등장과 민주주의의 시련	전두환 정부 의 수립	대통령 권한대행	5
			신군부의 등장	5
			5.18민중항쟁	10
			제8차 헌법개정	3

선진화의 모색	80년대의 사회와 문화	경제개발과 사회정화 운동	아웅산 테러 사건	3
			언론탄압	5
			중소기업진흥법	3
			정경유착	5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3
			3저 호황	3
			노동운동탄압	3
			사회정화운동	3
		시민사회의 성장과 6·29 선언	민주화추진협의회	5
			학생운동	10
			6.10민주항쟁	10
			6.29선언	10
			제9차 헌법개정	5
		80년대 사회의 발전	주거환경의 개선	10
			아파트 시대의 도래	5
			핵가족화	5
			중산층의 확대	3
		문화의 동향	심야통행금지의 해제	5
			중고등학교 자율화	5
			대중가요의 성장과 건전가요	5
			사회비평 소설	5
			국풍 축제	5
			마당극의 활성화	5
	민주화 시대 의 개막	권위주의 정치의 종식	평화적 정권교체	10
			민주주의적 개혁의 확대	5
			헌법재판소의 설치	3
			금융실명제	3
			공직자 재산공개	3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지방자치제와 지방화시대	5
			빨푸리 민주주의	5
			지역이기주의	3
			3당 통합	3
			지역갈등과 지역주의 정치	3
			토지공개념	3
		통일 운동의 확산	남북정상회담	10
			한반도 비핵화 공동성명	3
			남북공동선언	3
			햇볕정책	3
			1001마리의 소	3
			금강산 관광	3
	새로운 시장경제 적응	경제·사회의 발전	주택 200만호 건설	3
			외국인 투자의 개방	3
			금융실명제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5
			노동조합	3
			의료보험	3

			국민연금	3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3
			OECD 가입	3
		1997년의 외환위기와 국민적 극복	외환위기	5
			IMF 사태	5
			공적자금	3
			금모으기 국민운동	5
			국영기업의 민영화	3
			신용대란과 신용불량자	5
	세계화의 물결	새로운 환경 의 세계경제	WTO 가입	5
			FTA 협정	5
		국제적 위상의 제고	한·소 수교	3
			한·중 수교	3
			WHO사무총장 취임	3
			유엔 사무총장 취임	3
			노벨평화상 수상	3
			세계적 예술가의 활동	5
			해외 이민의 증가	3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조류	사회구성의 변화	다민족 국가	5
			국제결혼의 증가	3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	3
		문화의 시대	한류	10
			세계문화유산 등재	5
			프로 스포츠	10
			2002 한일월드컵 개최	10
			디지털 문화의 확산	10
		시민운동의 성장	NGO의 활약	5
			낙선운동	3
	대한민국 미래 비전	삶의 질	안전불감증과 대형사고	5
			KTX와 환경운동	5
		대한민국의 저력과 잠재력		10
		21세기 선진 국가를 향해		10
4 대주제	16 중주제			1,717

2) 분류사 중심의 전시프로그램(안)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수량
[경제·사회] 산업화의 상 징 made in korea	산업화	산업화의 여명	경제개발5개년계획	5
			노동집약적 경공업	10
			고속도로 건설	5
		수출주도 산업화	수입대체공업화	5
			수출주도공업화	5
			100억불 수출	5
	고도성장	중화학	제철소 건설	5

		공업화와 첨단산업육성	지방공단의 설립	10
			IT강국 코리아	10
		국토개발계획	고속도로와 국도	10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	10
			그린벨트	10
[정치]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시련	4·19민주혁명	3.15부정선거와 학생운동	20
			대통령의 하야	20
		5.16쿠데타	4.19이후 정치적 혼란	20
			5.16~12.12까지	20
		5.18민중항쟁	또 다른 군사정부	20
			상처와 치유	20
	민주주의의 복원	1987년 이후	6.29의 의의	10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5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가치	5
[문화·예술] 폐허위에 세워진 문화예술 강국	문화예술	폐허속에서 키운 희망	전쟁문학	10
			예술가들의 노력	5
			민족예술의 전승	5
		문화예술과 저항문화	저항시	10
			민중소설	10
			사회비평소설	10
	대중문화	대중 문화예술의 확산	대중가요	10
			프로스포츠	30
			문화시설의 증가	10
		문화 한류	드라마	10
			가요	10
			비보이	10
[정치·사회] 21세기를 위 한 선진화의 모 색	21세기 지식문화정 보사회	콘텐츠산업	전통문화콘텐츠	10
			영상콘텐츠	10
			지적재산권	10
			기술특허	10
		IT와 UT	IT코리아	10
			UT기술의 활용	10
	녹색성장	지구를 살리자	CO2 저감	10
			교토 의정서	5
			리우 협약	5
			지구온난화와 북극곰의 위기	10
		청정대한민국	태안 기름유출과 인간띠	10
			신재생 에너지 활용	10
	민족통일에 대한 희망에 보	남북교류의 증대	문화적 교류	10
			정치적 교류	10
			스포츠 교류	10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10
		우리는 하나	2002 월드컵과 남북응원	10
			50년의 세월을 극복하고 미래로	10
4 대주제	9 중주제			530

3) 인물 중심 전시프로그램(안)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전시품	수량
산업화의 씨앗	공장 노동자	방직공장	여공의 복장	10
			방직공장 재현	10
			밀랍 인형	5
		노동운동가	청년 전태일	10
			위장취업	10
			야학	10
	샐러리맨 야근과 철야	포장마차	포장마차 재현	1
			밀랍 인형	3
			소주, 막걸리 등	5
		사무실	책상, 의자	10
			컴퓨터 등	10
			기러기 아빠 상황 재현	2
	인력수출	중동건설 붐	중장비	3
			사막의 막사	3
			안전모 등	3
		파독 노동자	광부 밀랍 인형	3
			갱도 재현	2
			간호사 근무환경 재현	2
	농림수산인	신토불이	탈곡기, 정미소 재현	3
			어선 재현	3
			해외 활동 기술인	3
선진화의 씨앗	아줌마의 힘	자녀교육	치맛바람	5
			기러기 아빠	2
		우생순	아줌마의 힘	3
			가사노동의 가치	3
		경제	콩나물 값 깎기	3
			돼지 저금통	3
	군사 활동의 세계화	해외 파병	베트남 참전 등 군사파병	40
			의료 및 대민지원 활동	20
		군사과학	T-50 연습기	2
			이지즈함	2
	정치·사상가		개인 소개	10
	문화·예술인		개인 소개	10
	교육·과학·기술인		개인 소개	10
민족의 힘	대동의 함성	88서울올림픽	장면 연출	2
		2002 한일월드컵	장면 연출	2
		엑스포	장면 연출	10
	봉사와 희생	태안돛기 인간띠	장면 연출	20
		소말리아 파병	사진 자료 등	20
3 대주제	12 중주제			278

4) 특별전 프로그램 구상

■ 기획 및 특별전시회의 필요성

박물관은 수집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박물관의 주제가 시대조류, 담론, 국민적 열망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획전시회를 통해 국민과 사회와 소통해야 함

구체적인 기획전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학예진에 의해 결정되어지나, 비교적 시의성 및 시사성이 높은 주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획전시설의 환경 및 시설적 성능도 매우 우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현대 생활사 관련 상설전시회 현황

구분	명칭	개관	위치	비 고
공립	한국만화박물관	2001	경기부천	(재)한국만화정보센터 운영
	서울역사박물관	2002	서울	“도시서울의 발달” 일부
	부산 근대역사관	2003	부산	미문화원 건물 활용
	부산박물관	2004	부산	제2전시관 “근대실” 일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05	인천동구	달동네재개발 연계
	청계천문화관	2005	서울	청계천복원공사 연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인천	2006년 재개관. “역사실” 일부
	경기도박물관	2006	경기용인	2006년 재개관. “민속생활실” 일부
	부평역사박물관	2007	인천부평	미쓰비시 사옥 재현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	2008	인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
사립	그때그시절 전시관	2004	경기가평	남이섬 내 위치
	한국근대사박물관	2005	경기	2005년 12월 휴관

			파주	재개관 예정
거제해금강테마박물관	2005	경남 거제		
영화박물관	2005	경기 파주		헤이리 예술단지내
로봇박물관	2006	서울		인서울(전시업체)
타임캡슐	2006	경기 파주		헤이리 예술단지내

■ 근·현대 생활사 관련 특별전시회 현황

전시명칭	주최	기간
“유길준과 개화의 꿈” 전	국립중앙박물관·조선일보	1994.11. 9~1995. 1.28
“근대백년민속품물” 전	국립민속박물관	1995. 8. 2~1995. 9.25
“엄마 어렸을 적엔” 이승은 인형전	조선일보사	1996.12.11~1996.12.27
“일상·기억·역사” 전	(재)광주비엔날레	1997. 9.15~1997.11.27
“대한민국 50년 아! 우리들의 이야기” 전	조선일보사	1998. 8.15~1998.10. 6
“서울의 옛모습” 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1998.12. 4~1998.12.23
“대한민국 50년 -그때 그시절 이야기” 전	국제신문사	1998.12. 4~1999. 1.17
“한복의 세계화 이미지” 전	국립민속박물관	1998.12. 8~1999. 2.28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	국립민속박물관	1999. 9.15~2000. 2.28
“시각문화-세기의 전환” 전	성곡미술관	1999.11.18~2000. 1.26
“우리들이 살아온 20세기” 전	서울시립대박물관	2000.11.23~2001. 6.30
“철도와 20세기” 전	서울시립대박물관	2001.11.29~2002. 6.30
“코리아스케치” 전	국립민속박물관	2002. 5.29~2002. 8.26
“캠페인을 보면 사회가 보인다-표어·포스터·전단 100년” 전	서울시립대박물관	2002.11.28~2003. 6.30

“근대 대중예술 소리와 영상” 전	서울역사박물관	2003. 5.28~2003. 6.29
“광고 그리고 일상” 전	부산근대역사관	2004.12. 7~2005. 3. 6
“아! 어머니” 전	조선일보사·전쟁기념관	2005. 4.29~2005.10.30
“대한민국 딱지가 다 모였다” 전	정선 아리랑학교	2006. 3.11~2006. 5.31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6.14~2006. 8.28
“2006 상표-디자인” 전	특허청	2006. 8.30~2006. 9. 1
건국60주년 기념특별전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국립민속박물관	2008. 7.30~2008. 9.15
건국60주년 기념특별전 “한국전쟁 유해·유품전 - 뜨거운 山河를 가슴에 품고”	국립청주박물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8. 7. 29~2008. 9.15

라. 전시연출 기본방향

1) 연출의 기본방향

■ 실물자료 중심의 전시

박물관은 실물자료와 관람객의 만남을 통해 교육적 교감을 이루는 것이 전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도 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높은 전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시가 기본임

■ 사실감 높은 재현연출 기법 개발

전시 내용에서 전시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특정 상황을 재현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박물관에서는 매우 사실감 높은 모형 및 조명, 색채, 재료 등을 사용하여 관람객이 마치 역사적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감 높은 재현기법을 적용해야 함

■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표현방법 개발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 연령층이 방문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내용적 연출적 표현력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을 배려한 전시내용 연출, 어린이를 위한 표현방법 개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연출상의 과제임

2) 디지털 뮤지엄 구성을 위한 신기술 적용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연구, 수집/보존, 전시/관람, 체험/학습, 관리/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미래형디지털 박물관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경쟁력 있는 한국형 박물관 발전 모델로의 발전을 지향함

■ 디지털박물관 목표

- 21세기형 유비쿼터스 디지털 박물관(USN 기반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첨단 디지털 매체 활용 전시)
- 이용자 중심의 개인맞춤형 박물관(정보와 지식의 개인맞춤 지능형 시스템 / 위치 및 이용자 속성 기반 무선전시안내 시스템 구축)
- 상호작용에 기반한 인터랙티브 스마트 박물관(참여와 몰입의 전시환경을 구현한 지능형 시스템 / 지속적인 이용자 정보관리와 커뮤니티 구축)

■ 디지털뮤지엄 구현요소

- 역사성(歷史性) : 데이터베이스 & 아카이브(정보의 보존과 활용, 하이퍼텍스트, 상호참조)
- 의미성(意味性) : 콘텐츠(쌍방향 상호작용, 개인 맞춤형, 오감 체험형,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 소통성(疏通性) : 인터넷, 웹사이트(실시간, 글로벌, 공감각적 소통)

■ 디지털 뮤지엄의 개념

- 누구에게나 열린 - 개개인에 맞춘 해설과 전시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 전시 관람의 전과 후, 전시기간이 종료되어도 가상전시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디서든지 감상
- 감상방법의 다양성 - 실제 전시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을 가상공간 내에서 보거나 만지는 등 체험

■ 디지털뮤지엄 구성단계

- [1단계] 디지털라이징 : 전시 오브제(문화유산: 기록물, 유형물, 무형물) 정보처리(예, 국가지식정보화사업, 문화재청의 기록문화 전산화, 유형문화유산 3D스캐닝, 무형문화유산 몸짓과 소리 채취 등)
- [2단계] 아카이빙 : 저장, 분류, 데이터베이스화, 통합관리(예, 박물관 DB, 국가지식정보시스템, 온라인 팔만대장경, 문화콘텐츠닷컴 등)
- [3단계] 디지털 복원 : 기록문화 번역, 인문예술지식 기반 고증, 원형 디지털복원(예, 민족문화추진회(국역DB), 문화재청(유형문화유산디지털복원, 소멸 훼손대상 복원), 문화원형 사업 일부, 전자문화지도 사업 등)
- [4단계] 서비스 : 시간공간 체험형, 다감각, 다차원형 체험, 모바일형 서비스(예, VR 체험, 입체영상-4D, e-museum, 유비쿼터스 콘텐츠 박물관, 체험관 가상현실체험관과 특수영상사업, 산업화)

■ 적용 가능한 기술들

중분류	소분류	정의
개별화 체험기술	휴대전화 가이드기술	휴대전화가이드를 위한 콘텐츠의 설계 및 구현기술
	PDA 가이드기술	PDA 가이드를 위한 콘텐츠의 설계 및 구현기술
	Wearable PC 가이드기술	Wearable PC기술 및 가이드를 위한 콘텐츠의 설계 및 구현기술
	감성적 체험기술	감성 기반 체험 전송 및 재현 기술
상황연계 체험기술	시간 브라우저기술	브라우징을 위한 시간축의 설계와 연계 및 재현에 관한 기술
	공간 브라우저기술	객체지향 모델의 브라우징을 위한 공간구축 기술, 공간관리 기술
	실시간 대화기술	자동 번역 기술기반의 음성 인식, 합성, 감성 음성, 음색 변환 등에 관한 기술
다감각, 다차원 체험기술	4D Theatre기술	기존의 3D극장에 특수한 환경효과를 추가하여 몰입과 흥미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에 관한 기술
	체감형 시뮬레이터기술	체감형 가상 인터페이스 기술, 시각, 청각, 촉각 상호 작용, 동작 캡처 기술 등과 이에 관한 시뮬레이션 기술
	로봇기술	체험서비스를 위한 지능 로봇, 마크로센서에 관한 기술
	오감 재생기술	시각, 촉각, 후각, 청각 통합 재생기술

4. 교육문화프로그램

가. 공연·예술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공연·예술프로그램은 시민과 전문인을 위한 공연문화센터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공연, 교육, 연구활동프로그램으로 구

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 프로그램은 추후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야 함

■ 공연활동 프로그램

- 기획공연 : 주요 행사일 및 명절 등에 서울 및 전국적인 대표적인 축제행사와 연계한 공연예술의 공연
- 상설공연 : 요일별 상설공연으로 주3회 정도 상설공연 운영

■ 교육활동프로그램

- 교사 강습 : 각 급 학교의 음악교사에게 방학기간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론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실시
- 문화학교와 공연 예능강좌 :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취미생활화를 위한 강좌 등 개최

■ 연구활동프로그램

- 공연문화연구실 및 자료실 설치
-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논문집 발간
- 관련 자료의 수집보전
- 교육용 자료 개발

나. 도서·정보

■ 도서자료실 운영 및 출판

도서자료실은 박물관의 기존 기능과도 유사한 기능이나, 기존 박물관이 박물관의 성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도서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면,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보다 폭을 넓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도서자료를 제공해야 함

출판물은 일반 대중과 전문인에게 중요한 정보원이므로 출판물은

박물관의 활동과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시킴을 고려해야 함

출판물은 자체적으로 출판하기도 하고, 외부의 출판사가 출판을 담당하기도 하며, 출판물의 종류는 카탈로그를 비롯하여, 안내책자, 정기간행물 등이 있음

출판물은 이러한 도서자료뿐만 아니라 쌍방향 인터랙티브 비디오 디스크,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할 수 있음

■ 정보검색실 및 관광정보실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정보검색기능은 관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데이터의 공유와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정보실(또는 자료실)이 필요함

특히, 정보실의 자료는 정보화 된 일반기업이나 학교와의 연결, 온라인교육이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하여야 함

또한 인접한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과 관련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정보센터의 기능도 필요함

다. 문화행사

■ 다양한 문화단체와의 협력으로 행사를 다양화

박물관의 문화행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주요 문화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행사 유치와 일정조정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는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외부 문화단체 혹은 공연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관료, 티켓판매 수익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계약에 의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일정 기업의 스폰서링을 단순한 협찬이나 광고 수준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혹은 일정 마케팅 콘셉트와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지역의 다른 문화예술단체, 문화공간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임

■ 가족행사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문화행사로 기획하며, 이때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 후 참여자 및 공연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함

■ 시민 박물관

국내에서도 일부 공연장에서 운영하는 시민객석 등의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개인 혹은 단체가 일정비용을 기부하면 박물관은 그 기부액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넣어주는 행사임

■ 박물관 투어

박물관의 수요 내부공간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임

V. 운영 및 관리계획

1. 수요추정
2. 조직
3. 운영관리계획

백지

1. 수요추정

가. 국내 박물관 시장동향

1) 국내 박물관의 수

■ 국내 박물관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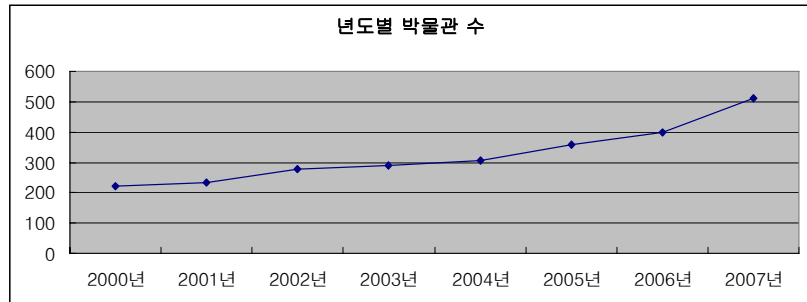
국내 박물관 수는 2007년 12월 현재 등록된 박물관은 511개이며 미등록 박물관은 98개로서 총 609개가 존재

국립	공립	등록박물관		소계	미등록박물관		소계	총계
		사립	대학		사립	대학		
27	225	180	79	511	68	30	98	609

박물관을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순으로 나타남

시도명	국립	공립	등록박물관		소계	미등록박물관		소계	총계
			사립	대학		사립	대학		
서울시	8	7	48	22	85	9	9	18	103
부산시	—	4	1	5	10	1	—	1	11
대구시	1	2	2	3	8	4	2	6	14
인천시	—	5	4	—	9	2	1	3	12
광주시	1	3	—	2	6	1	1	2	8
대전시	—	3	6	6	15	—	1	1	16
울산시	—	1	—	1	2	—	—	0	2
경기도	2	30	41	7	80	4	5	9	89
강원도	1	36	11	5	53	9	—	9	62
충청북도	1	18	6	5	30	6	4	10	40
충청남도	5	14	12	2	33	3	1	4	37
전라북도	1	14	2	5	22	3	—	3	25
전라남도	1	19	4	2	26	5	—	5	31
경상북도	2	34	8	11	55	15	4	19	74
경상남도	3	25	13	3	44	2	2	4	48
제주도	1	10	22	—	33	4	—	4	37
계	27	225	180	79	511	68	30	98	609

박물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112개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국립 박물관이 가장 많은 91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박물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 박물관 운영주체별 분류

주요 박물관 296개에 대해 운영주체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국립박물관은 29개, 공립박물관 75개, 사립법인박물관 106개, 학교 86개로 조사됨

구분	개수	박물관 명
국립	29	경찰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국악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산림박물관, 외교박물관, 철도박물관, 체신기념관, 현충사유물관, 국립등대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안보전시관, 잠사박물관

공립	75	<p>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독도박물관, 우정박물관, 대림미술관, 강원도향토사료관, 강화역사관, 거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군위군립송덕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문경새재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북천분관, 삼척시립박물관, 서울교육사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약령시전시관, 영일민속박물관, 의령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전라남도옥과미술관, 제주교육박물관, 창녕박물관, 청송민속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충주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화폐금융박물관, 대관령박물관, 화정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농업박물관, 익산보석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 목포자연사박물관,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서귀포감귤박물관, 충의사(윤봉길의사기념관), 대구향토역사관, 조세박물관, 합천박물관, 장생포 고래박물관, 진천중박물관, 백제군사박물관, 청주시한국공예관, 함덕수리민속박물관, 지질박물관, 농업과학관, 고성공룡박물관, 부천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부천수석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 백제역사문화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수도박물관, 서울교육사료관, 서울디자인박물관, 몽촌역사관, 일본군위안부역사관</p>
사립	106	<p>공주민속극박물관, 독립기념관, 가천박물관, 복권박물관, 갈촌탈박물관, 거제박물관, 경보화석박물관, 골프박물관, 금산인삼종합전시관, 금호미술관, 나주배박물관, 남진미술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동진수리박물관, 로댕갤러리, 롯데월드민속박물관, 마사박물관, 모란미술관, 목야박물관, 소전미술관, 송암미술관, 벽아미술관, 삼성교통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서울디자인박물관, 석봉자기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성곡미술관, 세종옛돌박물관, 셀라뮤즈박물관, 수덕사근역성보관,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아트선재미술관, 아트센터나비, 아프리카미술박물관, 양구선사박물관, 영월책박물관, 옹기민속박물관, 월전미술관,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이응노미술관, 일민미술관, 한국잠사박물관, 전원미술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신영영화박물관, 제주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한국금융사박물관, 지구촌민속박물관, 직지성보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 초전섬유켄트박물관, 측구박물관, 토탈야외미술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팬아시아종이박물관, 평강성서유물박물관, 한 국가구박물관, 한국고건축박물관,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한국미술관, 한국스키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한국잡지성보관, 한산모시관, 호림박물관, 호암미술관, 화폐박물관, 포스코역사관, 금오민속박물관, 세연철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교과서박물관, 제주테디베어뮤지엄, 한</p>

		국불교미술박물관, 지당세계만물박물관, 웅진교육박물관, 온양미술박물관, 신문박물관, 연기향토박물관, 해강도자기미술관, 토지박물관, 중남미문화원, 전쟁기념관, 상성출판박물관, 동산도기박물관, 초콜릿박물관, 우주항공박물관, 분당자연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엄,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하회동탈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싹대박물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전시관, 방원공룡박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 세계소리문화과학체험 소리섬박물관, 현죽고미술전시관, 공주민속극박물관, 한원미술관, 한광미술관, 환기미술관
학교	86	경기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영상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서강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의학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송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아주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우석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백제문화박물관, 한남대학교자연사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강릉대학교박물관, 건국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공군박물관, 관동대학교박물관, 국민대학교박물관,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대학교박물관, 대전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대전보건대학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가톨릭대학교전례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자연사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호서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미술관, 중앙대학교박물관, 부산여자대학교 다도박물관, 상주대학교박물관,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 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동남보건대학박물관,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주대학박물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계	296	

2) 박물관 이용 관람객 동향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동향

건립하고자 하는 현대사 박물관의 위치가 서울이므로 서울에 소재한 박물관 중에서 대표적인 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이용고객의 동향을 분석함

서울에 소재한 박물관 중에서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을 들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함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개장하였으며, 현재의 위치에 설립되어 개장한 지 4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함

2006년 1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고객은 3,287,895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10,0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임

2006년 4월 ~ 12월의 단체관람객은 총 877,296명으로 전체의 37%였으며, 이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함

2006년 4월 ~ 12월의 외국인 관람객은 전체의 3%인 87,146명이었고, 이 중 일본인 관람객이 48,600명(55.8%)으로 조사됨

연령대별로는 19세 ~ 64세의 관람객이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방문하였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06년의 관람객 수는 2,932,214명이었으며, 2007년의 관람객 수는 1,746,106명에 달하여 연 평균 관람객 수가 2,339,160명으로 집계됨

■ 지방 주요 박물관의 관람객 수

서울에 소재한 박물관을 제외한 국내 박물관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았음

연 평균 100만 명을 넘는 박물관으로는 국립경주박물관과 항공우주박물관, 그리고 산림박물관이 있음

순위	박물관 이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1	국립경주박물관	1,584,608	1,240,441	1,144,411	3,969,460
2	항공우주박물관	1,122,249	965,392	1,482,768	3,570,409
3	산림박물관	2,455,134	487,102	478,754	3,420,990
4	민속자연사박물관	837,649	928,235	961,940	2,727,824
5	오죽헌시립박물관	697,032	649,186	726,667	2,072,885
6	부산시립박물관	666,741	544,630	564,129	1,775,500
7	경기도박물관(도립)	625,300	485,461	392,620	1,503,381
8	목포자연사박물관	732,251	384,952	336,003	1,453,206
9	산림박물관	953,550	181,784	287,070	1,422,404
10	제주민속촌박물관	425,908	466,172	477,936	1,370,016
11	국립부여박물관	390,163	434,767	372,261	1,197,191
12	한국대나무박물관	262,677	428,496	469,318	1,160,491
13	국립공주박물관	531,923	280,316	298,497	1,110,736
14	공룡박물관	442,819	334,698	311,156	1,088,673
15	시립민속박물관	295,875	359,641	381,501	1,037,017
16	문경석탄박물관	305,497	334,561	366,095	1,006,153
17	국립등대박물관	341,219	266,044	291,812	899,075
18	국립광주박물관	438,574	217,397	235,439	891,410
19	시립민속박물관 (민속촌 포함)	323,273	304,964	195,286	823,523
20	국립제주박물관	302,113	301,730	214,758	818,601
21	국립전주박물관	381,006	192,042	194,320	767,368
22	삼성교통박물관	198,395	249,227	319,298	766,920
23	고래박물관	239,407	243,598	221,225	704,230
24	화폐박물관	202,072	186,172	308,323	696,567
25	석탄박물관	268,248	212,738	210,947	691,933
26	국립 김해 박물관	206,945	205,370	277,366	689,681
27	산림박물관	222,171	204,817	208,834	635,822
28	온양민속박물관	251,510	206,319	142,312	600,141
29	철도박물관	91,759	220,692	250,606	563,057
30	국립청주박물관	189,672	177,089	187,711	554,472

3) 관람객 수요예측

관람객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으로는 크게 나누어 시계열 예측기법, 회귀분석 기법 및 정성적 기법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분석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기존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개략적인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관광수요예측 기법의 개요

예측기법			예측방법
계량 기법 (양적 기법)	시계열 모델 (Time Series Model)	이동 평균법	과거 시계열자료를 연속적으로 산술평균하여 관광수요를 예측
		지수 평활법	최근 관측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과거의 관측값들을 지수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미래 예측
		분해 분석법 (추세 조정법)	시계열에 포함된 기본패턴들을 네 가지 변동(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변동)으로 분해하여 각 성분들을 개별 예측한 후 이들의 재 합산을 통해 미래의 시계열을 예측
		ARIMA (박스- 젠킨스 법)	불안정한 시계열을 안정화 시킨 후, AR모형(자기회귀모형)과 MA모형(이동평균모형)을 결합하여 적용
	인과 모델 (Causal Model)	회귀 모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나타내어 미래를 예측
		중력 모델	원주지(origin)와 관광지(destination) 간의 거리나 여행시간이 관광객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
질적 기법	시나리오 설정법		예상되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미래를 예측
	델파이 기법		미래 특정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합하는 조직적 접근 방법
결합 기법	두개 이상의 계량모델 또는 계량모델과 질적모델을 결합 적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는 년 인원 약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고, 지방에 소재해 있지만 산림 박물관의 경우도 연간 약 25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확보하기도 함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의 경우는 직장인을 고려한 야간개장이나 학생들의 교육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음

박물관의 건립초기에는 관람객이 많으나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는 전시물의 성격이나 내용보다는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음

따라서 관람객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역적 특성도 있을 수 있으며, 내부의 전시물을 이용한 교육 및 참여를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과 박물관 주요 구성원인 큐레이터의 역할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음

■ 국립현대사박물관 수요예측

건립예정인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경우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람객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이 추진된다면 관람 수요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유사한 연간 300만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세부적인 수요예측은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나. 현대사 관련 복합문화예술시설 분석

1) 문화시설의 정의 및 규모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공연시설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기타 문화시설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문화시설의 규모는 전체 1,618개소로 세부적으로는 공공도서관 607 개소, 박물관 511 개소, 미술관 115 개소, 문예회관 161 개소, 문예원 225 개소임

지역적으로 문화시설이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275개소), 서울(221개소), 경북(153개소), 강원(133개소), 경남(1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는 울산(17개소), 광주(32개소), 대구(40개소) 인천(41개소), 대전(42개소)의 순으로 나타남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원
						계	박물관				미술관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618	607	356	227	24	625	511	252	180	79	115	25	87	3	161	225
서울	221	69	40	22	7	115	85	15	48	22	30	1	27	2	13	24
부산	55	27	11	12	4	13	10	4	1	5	3	1	1	1	6	9
대구	40	16	2	12	2	8	8	3	2	3	0	0	0	0	8	8
인천	41	16	8	8	0	12	9	5	4	0	3	1	2	0	5	8
광주	32	13	8	5	0	10	6	4	0	2	4	1	3	0	4	5
대전	42	16	14	2	0	19	15	3	6	6	4	2	2	0	2	5
울산	17	8	4	4	0	2	2	1	0	1	0	0	0	0	2	5
경기	275	117	98	10	9	103	80	32	41	7	23	4	19	0	24	31
강원	133	44	22	22	0	58	53	37	11	5	5	3	2	0	13	18
충북	83	28	13	15	0	35	30	19	6	5	6	2	4	0	8	12
충남	113	46	26	20	0	38	33	19	12	2	5	0	5	0	12	17
전북	92	38	20	17	1	25	22	15	2	5	3	2	1	0	15	14
전남	122	50	30	20	0	36	26	20	4	2	10	2	8	0	14	22
경북	153	53	25	28	0	60	55	36	8	11	5	1	4	0	17	23
경남	129	45	21	24	0	48	44	28	13	3	4	2	2	0	16	20
제주	70	21	14	6	1	43	33	11	22	0	10	3	7	0	2	4

현대사 관련 문화시설은 문화시설 중에서 현대사와 관련된 문화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전시시설이나 도서관시설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시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다루고자 함

2) 박물관의 분류

박물관은 크게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을 나뉜다. 이중 전문박물관은 역사, 과학, 산업, 교육, 민속, 향토사료 등을 다루는 곳으로 소장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함. 종합박물관은 이러한 2개 이상의 분야가 소장된 곳으로 국립박물관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분류에 따라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511개 박물관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박물관 : 45 개소
- 교육박물관 : 18 개소
- 역사박물관 : 49 개소
- 과학박물관 : 60 개소
- 산업박물관 : 99 개소
- 인물박물관 : 39 개소
- 민속박물관 : 164개소
- 향토사료박물관 : 16 개소
- 종교박물관 : 21 개소

이중 역사박물관을 세분화하면 경찰박물관, 육군박물관 등 전문역사박물관과 고려, 조선 등의 역사를 다룬 근대역사박물관,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를 다룬 현대역사 박물관 등으로 나누어짐

조선시대 이후 일제침략시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역사를 다룬 박

물관의 수는 23개소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침략시대 또는 6.25 전쟁관련 역사를 다루고 있음

3) 현대사 관련 기타 시설의 현황

현대사 관련 전시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내 주요박물관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전시사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처럼 개별 시설에 흩어진 현대사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연구하고 종합하는 중심시설은 부재함

또한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대사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야 함

■ 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제주4.3기념관, 광주5.18기념관, 4.19기념관, 안성3.1운동기념관, 윤봉길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백범기념관 등이 대표적인 현대사 관련 전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음

■ 기업박물관

포스코박물관, 신세계한국상업사박물관, 우리은행박물관, 조흥은행금융박물관 등이 있음

■ 정부기관 박물관

외교사박물관, 체신박물관, 관세박물관, 조세박물관 등 정부 부처의 사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에도 현대사 관련 자료를 다루고 있음

■ 기타 관련 박물관

기타 관련 박물관으로 대학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교육사료관, 지도박물관, 향토사박물관, 출판박물관, 올림픽기념관, 신문박물관, 화폐박물관, 동두천자유수호평화관, 주택도시박물관, 토지박물관, 펄벅기념관 등에서도 현대사 관련 콘텐츠를 찾을 수 있음

2. 조직

가. 조직기본개념

■ 조직 목표

대한민국 현대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시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경제와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이어지도록 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풀을 구축함

■ 조직 기본개념

- 현대사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이룰 수 있는 전문가풀 구축
- 열린 복합문화박물관으로서의 유연한 조직 체계 구축
- 지속적 고객개발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강화
- 유관기관 지원 유도 및 활용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구축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전 국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시설로서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할 하는 역할을 수행

보다 넓게 외부로부터의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열린 문화예술시설을 표방해야 하며, 박물관 존재의 의미는 관람객과의 교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객개발이야말로 말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대전제임

■ 국내외 환경변화

경제발전 및 민주화, 한류 확산 등으로 우리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로 외국관광객 관람 수요 지속 증대

박물관의 본래적 기능과 함께 체험·교육·교류 기능이 강조됨과

아울러, 공연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 기능 요구

유물과 관련자료, 사진, 영상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을 통한 대국민 one-stop서비스 제공 등 ‘문화정보시설’로서의 역할 요구되며 특히, 현대사의 경우 소실되고 있는 관련 기록·유물, 주요 인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 시급

■ 고객개발을 위한 방안

재방문 매력도를 높여 관람객을 보다 더 정기적으로 방문케 하며, 정기적인 고객을 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로서 참여도를 향상시키도록 함

즐겁고 가치가 있는 방문이 되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내실 있게 제공하고 관광·서비스업계 및 지방정부와 파트너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직 및 직무구성

1) 주요 직무 분석

■ 주요 직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여 내외국인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체험·교육·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 관장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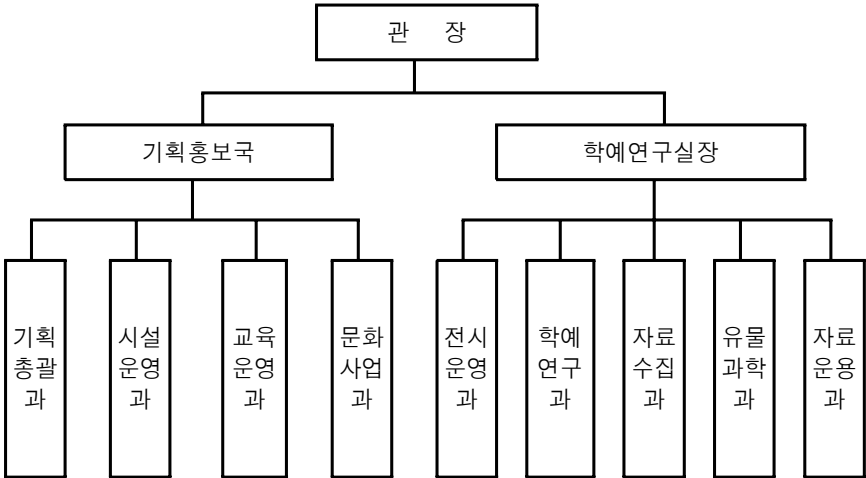
■ 국내외 유사기관 조직 비교(06.12현재)

구 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역사민속 박물관(일본) /03년현재
관장직급		고위공무원단 라 등급	차관급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차관급
직 제	'06년 정원	85명 (학예직40명)	250명 (학예직76명)	265명	102명
	기구	5과	1실, 2단, 3과, 4부, 4팀	2부, 1관, 6과, 4팀, 1담당관	1조정관, 5부, 5과, 25연구부문
'06년도 관람객수 (1인당 관람객수)		191만명 (22,471명)	328만명 (13,120명)	78만명 (2,948명)	17만명 (1,667명)

※ '06년 외국인 관람객수(연간) :
국립민속박물관(1,007,000명), 국립중앙박물관(87,000명)

2) 조직구성(안)

■ 조직(안) (1국, 1실, 9과)



■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 기능
기획 홍보 국	기획총괄과	박물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기획 총괄·조정 조직, 인사, 경리, 서무, 국회, 감사 등 기관운영 전반
	시설운영과	청사 및 시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관리 및 방호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수목 및 조경 관리/고객 안내 등
	교육운영과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현대사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문화사업과	박물관 홍보계획 수립·시행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학예 연구 실	전시운영과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획·상설전시·야외전시·해외전시, 전시디자인
	학예연구과	현대사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국내외 학술교류 및 진흥
	자료수집과	유물의 구입·수집 및 관리
	유물과학과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자료운영과	아카이브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아카이브DB 구축 및 관리, 표준 시스템 개발, 서비스

3) 직무(안)

■ 관장

관장은 현대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영
과 행정전반에 뛰어난 지도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

또한 총체적인 업무, 즉 계획, 조직, 인사관리, 감독, 조정, 정책결
정 및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담당하게 됨

■ 기획홍보국

- 중장기계획 및 각 부문의 경영계획을 취합, 각부서간의 의견

등을 조정하며, 재정, 인사, 사업계획 및 재원개발 등을 수립하는 등 행정기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

- 운영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물자와 서비스 용역, 종업원의 편의사항 및 시설에 대한 공급, 관리 업무를 담당
- 편성된 예산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입출금을 관리 감독
- 직원의 채용, 연수, 승진, 전배, 해직 등의 인사 변동사항과 복리후생, 급여, 감사 등의 업무를 관장
- 박물관의 지향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 비전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
- 시설 및 설비의 유지, 보수, 개발, 관리를 담당하며, 건물의 증·개축, 이에 따른 물자의 구매를 담당
- 박물관의 운영관리와 행정분야에 소요되는 예산, 인원 및 단기 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 전체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업무전산화와 경영합리화를 추진함
- 뮤지엄샵, 식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지만, 단순한 판매의 의미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함께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관람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이벤트, 컨퍼런스 등의 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 관람객의 편의도모와 교육, 멤버십, 섭외홍보, 마케팅, 보안·경비, 시설유지보수 기능 등을 수행
- 박물관이 마련하는 전시품과 자원에 대한 일반관람객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실시, 평가, 감독하는 업무를 진행함
-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서적, 정기간행물, 정부발간자

료, 필름, 비디오물, 오디오 자료 등을 관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에 분류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대여함

- 자원봉사자들이 만족스런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박물관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제를 운영해 나가야 함

■ 학예연구실

- 현대사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시 아이디어를 도면, 모형, 조명, 전시품의 배치 등을 통하여 상설전, 특별전, 순회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회 및 전시공간을 디자인하며 제작을 관리 감독함
- 소장품이나 전시물에 관련된 취득, 처분, 등록, 대여, 포장, 운송, 보관, 보험, 통관 등의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인 서류, 양식, 파일 등 제반 정보를 기록, 작성, 보관, 유지하는 책임을 가짐
-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장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테스트 등 작업을 수행하며 필요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함
- 온·습도 등을 감안, 소장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며, 공기오염과 과도한 빛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함
- 소장품과 관련된 전산처리, 전시실의 전시 콘텐츠에 대한 계획, 전시장 내부 기본 콘텐츠 제작을 담당
- 관련 자료의 종합 전산화 기획 및 연구개발 업무, 행정 운영에 따른 문서 및 자료의 관리, 국내외 현대사 관련 자료 전산화 계획 및 분석, 국내외 관련 기관 정보처리 기획 및 개발 관련 상황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수행함
- 전시시설의 내용적 관리와 시설과를 통한 물리적 시설관리가 필요함

- 시설 전반의 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 각 계획 콘텐츠에 대한 외부 용역 담당, 안내와 홍보용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계획 및 개발
- 기획총괄과, 교육운영과 등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소장품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 등을 통해 학문적 연구성과를 얻고 보급함

4)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

부서명	계획수립	설계	공사	전시준비	개관 준비	개관 2015
	2009	2010	2011	2012 ~ 13	2014	
<input type="checkbox"/> 관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추진단장)	(관장)
<input type="checkbox"/> 기획홍보국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국장)
○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	
○ 시설운영과	(건립과)	(건립과)	(시설과 (설비과)	(시설과 (설비과)	(시설과 (설비과)	
○ 교육운영과						
○ 문화사업과						
<input type="checkbox"/> 학예연구실						(실장)
○ 전시운영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전시과)	
○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학예연구과)	
○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자료수집과)	
○ 유물과학과						
○ 자료운영과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초기단계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각 팀별에서 선발된 인력으로 TF팀을 구축하는 등 상황에 따른 순차적 인원 확보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완성해 나감

이중 일부는 자원봉사자나 민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예산 절감 및 시민참여 기회를 배가시킬 수 있음

특히 문화예술 관련 민간분야 전문 인력을 초기단계에서부터 활용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절감, 운영의 효율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 조직 현황

연도 (건립단계)	조직 구성		정원	현원	비고
‘93년 (계획단계)	문화체육부	전담 실무과		14	4급(1), 5급(5), 6급(6), 학예관(1), 기능(1)
‘94년 (설계단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사무국	사무국장		1	3급(1), 4급(3), 5급(5), 6급(7), 7급(2), 학예관(1), 학예사(1), 기능(4)
		기획과		7	
		건립1과		9	
		건립2과		7	
		계	25	24	
‘97년 (공사단계)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	단 장		1	3급(1), 4급(2), 5급(5), 6급(4), 7급(4), 학예관(1), 학예사(1), 기능(6)
		기획과		9	
		시설과		9	
		설비과		5	
		계	36	24	
‘00년 (전시 준비)	"	단 장		1	3급(1), 4급(2), 5급(7), 6급(8), 7급(1), 학예관(3), 학예사(4), 기능(5)
		기획과		8	
		시설과		8	
		설비과		9	
		전시과		5	
		계	73	31	
‘04년 (준공 및 개관)	"	단 장		1	3급(1), 4급(2), 5급(8), 6급(13), 7급(2), 8급(1), 학예관(6), 학예사(4), 기능(5)
		기획과		8	
		시설과		11	
		설비과		11	
		전시과		11	
		계	73	42	

3. 운영관리계획

가. 연간 운영예산

1) 인건비

■ 인건비 : 29억 7천5백만원 예상

직원수 85명, 직원 1인당 연평균 인건비를 3,500만원으로 가정하면 1년간 인건비는 29억 7천5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기타 경비

■ 인건비성 경비 : 4억 4천6백2십5만원 예상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인건비의 15%로 가정함

■ 기타비용 : 56억원 예상

기타비용은 관서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m²당 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원가성 비용 : 15억 7천5백만원 예상

원가성 비용 산정을 위해 식음료 판매에 대한 원가비용으로 판매금액의 70%를 원가성 비용으로 가정하고, 1인당 식음료 객단가를 최대 기대관람인원 300만명으로 추정했을 경우 이중 15%의 인원이 5,000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연간 운영비 종합

위와 같이 연간 운영경비를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기타비용, 원가성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연간 총운영비는 약 105억원으로 추정됨

구 분	내 용	금액(천원)	비 고
인건비	85명(가정) (연평균 1인당 3500만원)	2,975,000	
인건비성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인건비의 15%)	446,250	
기타경비	관서운영비, 용역비 등 (연면적㎡당 20만원)	5,600,000	
원가성 경비	식음료 등 판매금액의 70% (관람인원 15%인 45만명 각 5천원 지출)	1,575,000	
계		10,596,250	

나. 수익사업계획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 속의 문화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함

고객의 증대는 운영에도 중요한 수익원이 됨을 인식하고, 운영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회원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회원이 되면 다양한 특전 부여하는 방식임

회원 전용식당 이용권, 교육프로그램 수강 및 상품 구입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회원소식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 관심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회원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회원관리 및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회원종류는 연회원, 종신회원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교육 연구 사업

이용 계층별로 구분하여 어린이학교, 청소년학교, 성인을 대상으

로 한 대학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등을 운영

단기교육 Program, 초·중·고 및 대학과 연계된 현장교육 및 학점 인정과목 등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특히 교육 연구사업 대상의 우선 순위는 서울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 모두에서 검토되어야 함

다. 시설관리 계획

1) 관리 시스템

■ 기본개념

관리시스템의 결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할 요건으로는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시설수준은 박물관의 등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판단되기도 함

외부환경은 공조시스템의 외기도입구 및 출입구를 통한 오염인자 반입에 대해 중요한 관건이 되며, 도심지내 박물관의 경우 매연 등 오염물질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짐

박물관의 실내환경은 일반적으로 존별로 그 차이를 부여하고 있으며, 존의 구획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계획하며, 환경조건의 중요도 역시 이 순위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수장고
- 전시케이스
- 전시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공공부문 (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 공연장 등)
- 관리·운영부문

2) 보안 및 방재 시스템

■ 전시실의 보안

박물관의 전체 영역은 공공접근이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으로 구분됨

전시부분은 진입하는 곳에 체크포인트를 갖추어 일괄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전시실에서 외부로의 진출입은 철저히 통제된 구조로 하고 전시실의 외벽은 보안성이 뛰어난 구조로 가급적 외기의 접변이 필요 없이 길어지지 않게 함

■ 수장고의 보안

수장고의 영역은 전문직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는 박물관의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수장고 출입은 박물관 직원의 경우라도 소장품 관리전문가의 동반과 함께 이루어지는 출입관리 체계 아래 이루어져야 함

■ 보안 시스템

중앙관리시스템에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방재체계와 연계 필요함

전시실, 수장고 등 주요 영역은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어야 함. 이 CCTV는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제어하며, 비디오 감시 및 위해 상황을 컴퓨터에 전달하며 즉시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주요 수장품은 전자감응식 경보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자동화 계획

■ I.B.S. 관계

박물관 건물 특성상 유물 및 전시물의 보관, 관리, 전시 및 연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의 기능에 맞는 시설이 필요함

빌딩자동화 시스템, 사무자동화 시스템, 통신 정보 시스템 등 최첨단수준의 시설을 설치하여 세계화되는 연구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하여야 함

이와 함께 건물관리의 과학적인 운영 및 전시물의 관리특성에 맞게 기계설비시설을 인텔리전트화 하고, 전시물 관리보호를 위한 방법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첨단기능화 하도록 함

■ 자동제어 설비

박물관의 모든 정보를 집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계획상 또는 설비계획상 각 존별로 구획되어 분산된 시설 장비들의 운전상태의 이상 유무 및 입관자의 통제와 전시유물의 적정 환경유지를 위해 중앙에서 집중 감시하고 원격제어를 통하여 최적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또한, 관내의 환경 조건과 각종 기기의 상태 등을 계측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검토하여 축적함으로써 유물의 보존에 대한 백 데이터(back data)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함

■ 건물관리 시스템

건물관리는 중앙집중되고 컴퓨터로 조정되는 전기감지기를 가진 건물환경체제(외부와 내부의 조명, 난방, 습도, 공기순환, 공기정화 등)의 전기적 조절과 감시를 담당하도록 구성함

4)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는 가깝게는 운영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해소를 위한 작은 기여가 됨을 인식해야 함

따라서 본 박물관에도 자연친화적 환기시스템, 심야전기활용, 태양열 및 대기 중 잠열 이용방안 등 다양한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되고 적용되어야 함

VI.건립추진계획

1. 사업추진일정
2. 건립추진기구 구성

백지

1. 사업추진일정

가. 건립추진계획

■ 건립추진일정(안) (2009년 ~ 2014년, 6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건립추진일정(안)은 완공까지 총 약 7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단계 및 분야별 유기적 일정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구분	내 용	일 정	비 고
건립기본계획 단계	기본구상 연구	200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2009년 1월 ~ 6월	
	기본계획연구(건축)	2009년 6월~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심의 및 공고	2009년 12월	
	설계경기	2010년 1월 ~ 6월	
	건축기본설계	2010년 7월 ~12월	
	건축실시설계	2011년 1월 ~ 6월	
건립사업 단계	청사 이전	2011년 4월 ~ 8월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2011년 8월 ~11월	
	착공	2011년 9월	
	리모델링(철거 및 구조보강)	2011년 9월 ~ ~ 2012년 6월	
	토목공사	2011년 12월 ~ 2012년 6월	
	건축공사	2012년 7월 ~ 2014년 6월	
전시사업 단계	기본구상 및 전시기본계획	2008년 ~ 2009년 11월	
	전시품 선정	2009년 9월 ~ 2010년 8월	
	자료수집(구입, 기증·위탁)	2010년 1월 ~ 2014년 6월	
	전시기본설계	2010년 7월 ~ 2011년 6월	
	전시실시설계	2011년 1월 ~ 2011년 12월	
	전시공사	2013년 1월 ~ 2014년 6월	
	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박물관통합디자인	2012년 1월 ~ 2014년 11월	
개관 단계	시운전 및 개관준비	2014년 4월 ~ 2014년 11월	
	개관	2015년	
	개관이후		운영단계

■ 단계별 개요

○ 건립기본계획 단계

건립기본계획 단계는 본 연구를 포함한 기본계획연구를 통하여 건립을 위한 기본내용이 마련되어짐. 이 단계에서 결정된 내용은 추후의 단계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됨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이 단계는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경기(또는 턴키 등)와 건축가의 선정이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로 나누어짐.

건축과 전시사업은 별도의 전문조직에 의해 관리되어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야 하지만, 사업진행 전일정에서 두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건립사업 단계

건축단계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공사, 전시공사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됨

본 사업에서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철거 및 구조보강) 단계가 본격적 건축공사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며, 토목공사 착공전 시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매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전시사업 단계

전시사업은 전시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통해 수집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게 됨. 자료수집의 1차 목표는 개관을 위한 전시자료 중심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나, 수집은 장기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전시자료의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전시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어지며, 전시실시설계 이후 전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MI(박물관통합디자인)작업이 필요함

전시공사는 자료의 수집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실물과 복제 또는 재현, 영상 등 적절한 기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시사업 전반을 통해 박물관의 학예연구원 및 전시디자이너의 협력과 건축사업팀과의 협력을 통해 최상의 교육적, 미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관단계

개관단계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축의 전모와 전시실의 기본적인 공사가 마무리된 후 개관을 위한 준비단계임

개관을 위한 시험운영을 거치도록 하며, 이는 개관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완숙한 운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시험운영 기간 동안 개관을 위한 홍보와 준비 작업에 착수함

개관은 개관기념 특별전시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국립현대사박물관의 탄생을 정식으로 세상에 알림

○ 개관이후 운영단계

개관이후에는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수집·연구·교육·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펼침

시설의 유지관리와 전시실의 개보수, 증개축 등에 관한 긴 안목의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함

나. 총사업비(안)

■ 건립 총사업비 : 1,570억원

현 문화체육관광부 본관 청사를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한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약 1,570억원으로 집계됨

구분		금액(천원)	세부 내용
공사비	공사비	129,000,000	○ 건축공사비 : $28,000\text{m}^2 \times 3,500\text{천원} = 98,000\text{백만원}$ ○ 전시공사비 : $6,000\text{m}^2 \times 3,500\text{천원} = 21,000\text{백만원}$ ○ 토목/조경 및 기타공사 : 10,000백만원
	설계 및 감리비	11,900,000	○ 기본설계비 : $129,000\text{백만원} \times 5.10\% \times 0.4$ $\approx 2,630\text{백만원}$ ○ 실시설계비 : $129,000\text{백만원} \times 5.10\% \times 0.6$ $\approx 3,940\text{백만원}$ ○ 감리비 : $129,000\text{백만원} \times 3.52\% \times 1.0$ $\approx 4,550\text{백만원}$ ○ 기초조사비 : 800백만원 (건축 및 전시기본계획연구, 측량 등 각종 영향평가)
	소계	140,900,000	
자료수집비	수집비	13,800,000	○ 전시자료 수집비 : 1식
	소계	13,800,000	
부대비용	시발굴비	900,000	○ 시발굴조사비 : $6,446\text{m}^2 \times 150\text{천원} \approx 900\text{백만원}$
	설계경기비	1,100,000	○ 국제설계경기운영 : 1식
	시설부대비	300,000	○ 시설부대비 : $157,000\text{백만원} \times 0.2\% \approx 300$
	소계	2,300,000	
총계		157,000,000	

* 본 사업비는 기본계획 연구결과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참고: 국립민속박물관 2001~2007년 유물구입액은 약 176억원으로 연평균 약 25억원임)

2. 건립추진기구 구성

건립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은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건립추진기구의 탄력적인 조직체계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일정에 따른 건립추진기구의 성격은 현재인 1단계 건립추진준비단, 2단계 건립추진단 그리고 3단계 운영기구 구성으로 전개되는 단계별 성격을 가지고 있음

조직 운영내용은 기본계획 추진, 설계 시공관리, 전시부분 지원, 건물 운영관리 지원을 하게 되며 일정기간 후 국립현대사박물관 정상 운영 시 박물관팀에게 이관됨

■ 1단계 구성 / 건립추진준비단

건립추진단 전 단계로 현재 건립추진을 준비하는 전담기구임

건립추진단 구성 전단계로 사업추진 구상 및 건립에 기초자료 조사와 박물관의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함

주요 업무로는 박물관 기획을 계획으로 실천하기 위해 건축프로그램을 확정, 설계자 선정,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확정, 본설계의 심의·감독을 수행하며 공사입찰을 준비, 건립공사 기구로 전환준비 등이 있음

■ 2단계 구성 / 건립추진단

건립추진단은 건립공사 및 전시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지휘 공사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감독과 기술적 문제를 협의하며, 공사집행에 대한 행정관리, 행정업무처리 및 지원업무 수행

주요 업무로는 시공회사 선정에 따른 정책, 기준을 수립하고 추진, 공사발주 후 건설의 진행 관리 및 예산을 집행하고 기술의 제반 사항을 관리 운영 등임

건물완료 단계부터 박물관 전시 및 건물관리운영 및 공사이후 후속관련사항을 관리하고 박물관 운영이관을 주도함

■ 3단계 구성 / 국립현대사박물관 운영조직 구성

국립현대사박물관 운영기구 구성 단계로 건설완료시부터 박물관 소장품전시, 개관준비, 개관행사를 집행함

국립현대사박물관 운영의 기본은 박물관 내의 경영적 측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위한 체계 및 방침을 주도하고, 대중적 측면에서 볼 때는 관객의 요구와 기대, 호응도 그리고 박물관 활동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음

■ 개관준비

개관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이벤트와 개관특별전시회를 마련하여 축제적 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TV 및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어 박물관의 개관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기획이 필요함

VII.종합 및 제언

- 1. 연구종합**
- 2. 정책건의 및 제언**

백지

1. 연구종합

■ 건립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부지
- 대지면적 : 6,446㎡ (약 1,950평)
- 연면적 : 28,000㎡ (상설 및 기획전시실 6,000㎡, 다목적 공연장 1,600㎡ 등)
- 규모 : 지하3층, 지상 5~8층 (기존 본관 활용 + 일부 증축)
- 총사업비 : 1,570억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성격

- 복합문화시설로서의 현대사박물관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 기능

- 자료의 수집·보존, 전시
-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등

■ 전시내용

-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미래를 범위로 하는 시대사 중심 전시
- 현대사의 분야별 주요 사건을 소개하는 분류사 중심 전시
- 대한민국 산업화, 선진화, 민주화에 관련된 인물 전시

2. 정책건의 및 제언

■ 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보존의 핵심기관으로 육성

- 역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 장기수집정책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
- 개관을 위한 전시대상 자료의 수집은 매우 시급함

■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의 상징 문화시설로 역할 부여

- 국립현대사박물관에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 확보 필요
- 상징적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제한의 완화 등 조치 필요

■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부지확장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 현재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28,000㎡(약 8,500평) 규모에서는 국가상징거리와 광화문광장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역할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므로 확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
- 미국대사관 이전부지로의 시설 확장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옥외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건립과정의 위험 요소

- 시발굴 기간, 문화재위원회심의 등 관련 기관 심의로 인해 기간 변경가능성 있으므로 유연한 예산운영이 요구됨
- 전시내용에 대한 논란이 길어지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존 본관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활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건물의 내부공간 활용방안도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록

백지

국립현대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관련 원로 및 전문가 자문 내용

1. 개요

■ 자문 목적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국립현대사박물관 전시 기본개념 및 전시체계 방향 관련 자문
- 건립위원회 구성 이전 현대사박물관 관련 현안 사전 파악 및 준비

■ 자문 방법

- 개별 방문을 통한 대면자문(7차)

2. 추진일정 및 주요 자문내용

차수	성명	일시	주요 자문내용
1차	이현희	11월 13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개념과 내용의 방향 현대사 관련 자료 유형(과거사 관련 위원회 연구성과와 경향 등)
2차	김일영	11월 14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개념과 내용의 방향 현대사 관련 시기구분과 접근방법 현대사 관련 학계 동향 등
3차	김광웅	11월 19일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개념과 내용의 방향 현대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4차	진덕규	11월 28일	현대사 관련 역사, 정치학 등 관련 학계의 동향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개념과 내용의 방향
5차	임현진	12월 3일	현대사 관련 역사, 정치학 등 관련 학계의 동향 국립현대사박물관의 명칭과 추진방향
6차	박석흥	12월 11일	현대사 관련 역사, 정치학 등 관련 학계의 동향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건립 관련 전문가 자문 명단 추천
7차	한영우	12월 24일	현대사 관련 역사학 등 관련 학계의 동향 현대사의 기점과 전시방향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방향

-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것임 (김일영)
- 국립현대사박물관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의 의미를 담는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지향적 메시지를 담아낼 필요가 있음 (진덕규)
- 국립현대사박물관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박물관은 굳이 현대사의 밝은 면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현대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였음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진덕규)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은 국론통합의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영웅화하기보다 국민 전체의 저력과 잠재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시가 되어야 함 (한영우)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구성

- 건립위원회 구성시 가급적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학자와 전문가 그룹이 다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김일영)
- 건립위원회 구성시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연령대 구성 등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김광웅)
-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위원회는 좌우에 편향되지 않은 중도적 인물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임현진)
- 현대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이 참여해야 할 것임. 현대사 전공학자와 전문가 인적풀이 넓지 않은 만큼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박석홍)

■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의 범위와 방향

- 국립현대사박물관에서는 자료를 충실히 남기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료를 의미있게 만드는 것임. 곧 ‘역사라는 옷을 입히는’ 과정이 중요함 (김광웅)
-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접근과 시각보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정치와 경제를 다루면서도 문화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김광웅)
-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치밀한 연구검토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김광웅)
- 현대사 전시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결코 역사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임 (진덕규)
- 국립현대사박물관의 전시는 사건 중심의 개괄적 구성보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례로서 개인의 생활사를 통해 사회상을 조명하는 방법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진덕규)
- 국립현대사박물관은 개인소장품을 많이 수용할 필요가 있음. 주변에 잡지초간본 혹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수집하고 소장해온 자료들이 많을 것임. 국립현대사박물관의 기증코너를 활용하여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진덕규)

■ 현대사의 시간적 범위와 여론 수렴

- 현대사박물관의 시간영역의 범위를 해방 이후 60년에 한정하기보다 그를 전후한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술이 요구되며, 21세기적 패러다임과 프레임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할 것임 (김광웅)

- 대한민국의 수립은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의 탄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대한제국기 이래의 근대국가수립을 위한 역사적 흐름에서 그 의의를 조명해야 할 것임 (한영우)
- 현대사 해석에 대한 세미나와 박물관 건립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현대사에 대한 학자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박석홍)
- 최근 근현대사교과서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계의 동의와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한영우)

■ 자문위원 명단

성 명	현 직	비고 (분야)
	주요경력	
이현희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	역사학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김광웅	시사인(시사IN) 대표이사겸발행인	정치학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진덕규	이화학술원 원장	정치학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회장	
박석홍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언론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한영우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역사학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발 행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프레미앙 423호

전화 (02)745-8241 전송 (02)745-8242

E-mail : master@kicaspace.com

Homepage : <http://www.kicaspace.com>

발 행 인 박영규

편집인 : 박석수

인 쇄 삼원애드 전화 733-4626 전송 720-5062

인쇄/발행 2008년 12월
